

석사학위논문

# 백조의 여름

- The Summer of the Swans -



제주대학교 통역대학원

한영과

김 정 임

2005년 2월

# 백조의 여름

지도교수 김 재 원

김 정 임

이 논문을 통역번역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4년 12월



김정임의 통역번역학 석사학위 논문을 추인함

심사위원장 \_\_\_\_\_ 인

심사 위원 \_\_\_\_\_ 인

심사 위원 \_\_\_\_\_ 인

제주대학교 통역대학원

2004년 12월

# The Summer of the Swans

Jung-im Kim

(Supervised by Professor Jae-weon Kim)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Department of Korean-English  
GRADUATE SCHOOL OF INTERPRET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Dec. 2004

# 목 차

ABSTRACT .....	1
제1장 .....	3
제2장 .....	7
제3장 .....	9
제4장 .....	12
제5장 .....	17
제6장 .....	20
제7장 .....	22
제8장 .....	26
제9장 .....	31
제10장 .....	35
제11장 .....	37
제12장 .....	43
제13장 .....	48
제14장 .....	53
제15장 .....	56
제16장 .....	60
제17장 .....	66
제18장 .....	68
제19장 .....	71
제20장 .....	74
제21장 .....	76
제22장 .....	80
제23장 .....	84
작가소개 .....	87
참고문헌 .....	88



## Abstract

This book, *The Summer of the Swans* by Betsy Byars, is about a fourteen-year-old girl named Sara Godfrey. The compelling story is about the longest summer day in her life. Sara's fourteenth summer is turning out to be the most confusing time of her life. Up until this summer, things have flowed smoothly, like the gliding swans on the lake. But now she's bored, lonely, and basically unhappy with her life as a teenager. Sara feels awkward, ugly, and unattractive because she has large feet, skinny legs and a crooked nose. She doesn't know who she is, and she doesn't think anybody likes her at school. Her moods shift unpredictably. One minute she is "up" about something, the next she is "down" about the same situation. Her ten-year-old brother, Charlie, who has been brain-damaged and mute since the age of three, is loved by everyone in the community. The children live with their aunt because their mother has passed away. Sara wishes she were pretty and popular like her older sister, Wanda and had a normal, supportive family that included her absent father. Though she loves her mentally disabled younger brother, Charlie, she is tired of watching over him. She wants to fly away from everything.

During the summer, swans come to a nearby lake, and to escape, the girl goes to watch the swans. One day she brings Charlie to the lake and he feels warmth and a soft smoothness that he hasn't ever felt before watching swans gliding slowly on the lake. That night he got lost when he got out of bed to go watch the swans at the lake. As Sara frantically searches for Charlie, she discovers some very important things about herself and her feelings and she reaffirms her friendship with one very important person - Charlie, whom she loves dearly. Finally she realizes that she is a normal girl and recovers her self-esteem.

This book is very well organized. It is recommended for older children around the age of 12 or 13 because it is easy to understand and it is not extended in length. For these reasons, any age group will enjoy this book because it is a pleasurable read.



## 제 1장

사라 고드프레이는 침대에 누워 강아지 보이쉬에게 스카프를 묶어주고 있었다. “턱 좀 들어봐, 보이쉬, 응?” 사라는 한쪽 팔꿈치를 머리에 권 채 비스듬히 누워서 말했다. 강아지는 나이가 꽤 늙어보였고 틈만 나면 잠을 잤다. 그리고 사라가 자기 머리를 들어올려 스카프를 묶어 주는 동안에는 눈을 감은 채 옆으로 누워 있었다.

사라의 언니 완다는 화장대 위에 걸터앉아 머리를 빗고 있었다. 완다가 말했다. “보이쉬 혼자 내버려 두지 그러니?”

“뭐 달리 할 게 없잖아.” 사라가 쳐다보지도 않고 대답했다. “쇼 하나 보여줄까?”

“아니, 됐어.”

“보이쉬의 오만가지 얼굴 쇼’ 인데.”

“아, 됐어! 안 볼래.”

사라는 강아지 턱 밑에 깔끔하게 묶여 있는 스카프를 잡고 강아지를 들어올리면서 말했다. “자, 당신을 즐겁게 해주기 위한 비장의 쇼오~, 보이쉬의 첫 모습은 러시아의 시골뜨기 아줌마 표정입니다!” 짜자아아안~!

“제발 개 좀 내버려 뒀라.”

“애도 쇼하는 것을 좋아해. 그렇지, 보이쉬?” 사라는 손수건을 풀고 다시 접어 그것을 강아지 머리 꼭대기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다. “자 보이쉬의 두 번째 얼굴표정입니다. 이번에는 지구의 반을 돌아 신비한 동양의 세계로 왔습니다. 보이쉬가 신비스러운 힌두인의 표정을 보여주겠습니다. 짠~!”

어이없다는 한숨을 쉬며 완다는 몸을 돌려 강아지를 쳐다보았다. “오! 가엾어라. 사람으로 치면 보이쉬는 지금 84살인데.” 완다는 헤어스프레이를 흔들며 머리에 뿌렸다. “게다가, 그건 내가 아끼는 스카프잖아.”

“아, 알았어.” 사라는 베게 위로 벌러덩 누웠다. “여기선 뭐 할게 있어야 말이지.”

“좋아, 그렇게 심심하면 내가 쇼를 봐줄게.”

“싫어. 이젠 그것도 재미없어. 어? 여기선 향수공장 냄새가 나네.” 사라

는 스카프를 자기 얼굴위에 올려놓고 그 파란색 얇은 천 사이로 위를 올려다보았다. 사라 옆에는 보이쉬가 공처럼 자기 몸을 둥글게 말아 누워있었다. 그들은 잠시 꼼짝하지 않고 누워있었다. 그러다가 사라가 침대위에 일어나 앉아 자신의 길고 야윈 다리를 내려다보았다. 사라가 말했다. “우리학교에서 내 발이 제일 커.”

“사라야, 솔직히 말해 네 수백만 가지의 단점을 또 줄줄 늘어놓지 않으면 좋겠다. 또 듣고 싶지 않으니까.”

“뭘, 내 발이 큰 건 사실이잖아. 언젠가 체육시간에 남자애들이 여자애들의 운동화를 막 던지기 시작했었는데, 불 더함이 내 운동화를 잡고 던지려다가 신어보았는데 개 발에 완전 꼭 맞더라고! 불 더함과 같은 사이즈의 신발을 신는데 언니라면 기분이 어떡했겠어?”

“사람들은 그런 거 별로 신경 안써.”

“아니야!”

“맞아. 별로 신경 안써. 내 손도 진짜 못 생겼어. 내 손가락 좀 봐! 그렇다고 사람들이 그걸 알 수 있도록 ‘여러분 내 짜리몽땅한 손가락 좀 보세요. 진짜 짜리몽땅하죠!’ 라고 항상 말하면서 돌아다니진 않잖아. 그러니까 네 단점들도 그냥 무시해버려. 사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단점에 대해서만 신경을 쓰게 돼있어.”

“하지만 불 더함이 언니 신발을 신고 온 체육관을 춤추면서 돌아다니다면, 언니도 발이 크다는 사실을 무시하긴 아주 어려울걸. 불 더함이 신발을 벗었을 때 보니까 신발이 조금도 늘어나지 않았더라고.”

“그럼 네가 재키 케네디 오나시스와 같은 사이즈의 신발을 신는다면 기분이 좀 나아질까?”

“언니가 그걸 어떻게 알아?”

“언젠가 한번은 재키가 인도사원에 들어갈 때 신발을 밖에 벗어두었는데, 그때 어떤 기자가 그 신발사이즈를 알기위해 신발 안을 들여다보았어.” 언니는 거울 가까이 몸을 숙여 자기의 치아를 쳐다보았다.

“재키의 발이 조금 작아 보이던데.”

“그건 재키가 오렌지색 운동화를 신지 않기 때문이지.”

“나는 내 오렌지색 운동화를 좋아해.” 사라는 침대 끝에 앉아서 신발 속에 발을 집어넣고는 들어올렸다. “대체 뭐가 문제야?”

“네가 무언가를 감추려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잘못된 게 없어.” 그



신발 염색 안할 거니? 난 나가봐야겠어. 프랭크가 올 거야.”

완다는 문밖으로 나갔고, 사라는 언니가 부엌으로 가는 소리를 들었다. 사라는 보이쉬와 머리를 맞대고 침대에 누워 드러누웠다. 사라는 자고 있는 보이쉬를 쳐다보다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크게 울기 시작했다.

“보이쉬, 보이쉬, 나 울고 있어.” 사라는 마구 울부짖었다. 몇 년 전 만해도, 보이쉬가 어렸을 때는 누군가가 울면 그냥 넘기지 못했다. 사라가 그냥 우는 척만 해도 보이쉬는 달려와 구슬픈 소리를 내면서 울음을 그칠 때까지 발로 사라를 문지르며 손을 훔아주곤 했다. 그런데 지금 보이쉬는 눈을 감은 채 그저 누워있는 것이다.

“보이쉬, 나 울어.” 사라는 다시 말했다. “나 이번에는 진짜 우는 거야. 너 날 사랑하지 않는구나.”

강아지는 눈도 뜨지 않은 채로 귀찮은 듯이 몸을 움직였다.

“보이쉬, 보이쉬, 나 울어. 너무 슬퍼, 보이쉬.” 사라는 울부짖었다. 그러다가 울음을 멈추고 갑자기 일어나 앉았다. “너 이제 다른 사람은 거들떠보지도 않는구나. 그렇지, 보이쉬? 너 요즘은 누가 울다 죽어도 모른 채 하겠구나.”

사라는 일어나서 방을 나왔다. 복도에서 자기 뒤를 따라오는 보이쉬의 발걸음소리를 들으면서도 사라는 강아지를 쳐다보지도 않고 말했다. “나 지금은 너 보기 싫어, 보이쉬. 방으로 돌아가.” 사라는 몇 발자국 더 걸어갔고, 보이쉬는 계속 따라오고 있었다. 사라는 몸을 돌려 보이쉬를 쳐다보았다. “니가 좀 뭔가를 모르는 모양인데, 보이쉬. 강아지는 사람들에게 위안을 주고 달려들어 코를 비벼대면서 기분 좋게 해주라고 있는 거야. 그런데, 너 너무 게을러서 밖에 나가지도 않고 편안한 곳에 누워있거나 집 안에 뼈들이나 숨기고 다니잖아. 얼른 방으로 가!”

사라는 부엌으로 향했고 보이쉬는 계속 따라오고 있었다. 보이쉬는 저 혼자 있길 못했다. 그때 사라는 숙모와 언니가 다투는 소리를 들었고 부엌으로 가려다가 현관 앞으로 나갔다.

잠시 후 뒤에서 보이쉬가 현관문을 긁어댔고, 사라는 강아지가 밖으로 나올 수 있게 문을 열어주었다. “이제 그만 좀 쫓아다녀.”

사라의 남동생 찰리는 맨 위 계단에 앉아있었고, 사라는 동생 옆에 앉았다. 그리고는 발을 앞으로 내밀고 쳐다보면서 말했다. “난 내 오렌지색 운동화가 좋아, 너도 좋아하지. 그렇지, 찰리?”

찰리는 대답이 없었다. 찰리는 막대사탕을 먹고 있었는데 막대가 빠져 버려 그것을 빨간 사탕 속으로 집어넣으려고 하고 있었다. 여러 번 막대를 제자리에 집어넣으려고 했기 때문에 막대가 휘어져 있었다.

“어디, 내가 해줄게.” 사라는 막대를 사탕 안으로 집어넣고는 찰리에게 건네주었다. “이젠 안빠지게 조심해.”

사라는 잠시 말없이 앉아있었다. 그리고는 또 자신의 발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나는 이 오렌지색 운동화가 싫어. 그냥 싫어.” 발이 보이지 않게 베란다 난간에 등을 기대고는 말했다. “말할게 있는데 찰리, 이번 여름은 내 생애 최악의 여름이었어.”

사실 사라는 왜 그런지도 모르고 있었다. 사라는 호친스 아줌마 댁에서 아기 봐주는 아르바이트도 하고 친구 메리와 함께 데어리 퀸(Dairy Queen) 으로 산책도 가고 텔레비전도 보면서 작년과 다름없는 여름을 보냈지만 모든 게 달라 보였던 것이다. 그녀의 삶이 마치 거대한 만화경 같았고 그 만화경이 다른 장면으로 변해 지금은 모든 것이 다르게 보였던 것이다. 같은 돌맹이들이라도 일단 흔들려버리면 더 이상 같은 모습을 뿔 수 없는 것과 같았다.

더구나 그것은 그저 하나의 다른 모습이었을 뿐만 아니라 일종의 변화였고 그것은 매우 큰 변화였다. 올 여름에는 아무것에도 확신이 없었다. 한순간 행복해하다가도 갑자기 아무 이유도 없이 불행해지는 것이었다. 한 시간 전에 사라는 자신의 운동화를 좋아했지만 지금은 그것들이 싫어졌다.

“찰리, 올여름이 얼마나 끔찍했는지 말해줄게. 비열한 짐 월슨 녀석이 너를 시소에 앉혀주었던 거 기억하지? 그리고 너를 위아래로 올렸다 내렸다 하다가 진짜 오랫동안 너를 공중에 떠 있게 한 다음 갑자기 밑으로 떨어뜨리곤 했지? 그래서 넌 시소에서 내려오지도 못하고 다시는 못 내려올 수도 있다고 생각했었지?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남은 네 평생 동안 계속 말이야. 올 여름이 내게는 꼭 그와 같았어.”

찰리는 사탕과 막대를 누나에게 내밀었다. “이번이 마지막이다!” 사라는 그것을 받아들였다. “실은 사탕이 너무 끈적거려서 만지고 싶지도 않단 말이야.” 사라는 막대를 다시 사탕에 집어넣어 찰리에게 주었다. “또 사탕이 빠지면, 찰리 고드프레이! 사탕 던져버릴 거야, 알았지?”

## 제 2장

찰리는 빈 막대를 쳐다보다가 손을 입 안에 넣어 사탕을 꺼내 손에 쥐었다. 사탕이 또 빠지면 사탕을 던져버린다고 사라가 말했기 때문에 찰리는 그걸 주먹에 꼭 쥐고 사라의 시선을 피하였다.

찰리는 계단 위에서 두 발을 앞뒤로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오랜 세월 수도 없이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널빤지 안에 두 개의 홈이 패여 있었다. 이런 행동은 그가 뭔가에 대해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종의 신경성 습관이었고 사라는 즉시 그것을 알아차렸다.

“좋아, 찰리, 사탕 어디 있어?” 사라가 성가시다는 듯이 말했다.

찰리는 머리를 천천히 좌우로 흔들어대기 시작했고 눈은 꼭 감고 있었다.

“버리지 않을게. 한 번 더 끼워 줄려고 그래.”

그래도 찰리는 누나를 믿지 않는 것 같았고 계속해서 머리를 흔들었다. 그 동작은 계속 기계적으로 반복되면서 마치 영원히 계속될 것 같았다. 사라는 잠시 그를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러다가 그녀는 한숨을 쉬며 찰리의 손을 들어 올려 주먹을 느슨하게 피려고 했다. “진짜, 찰리, 너 이 지저분한 사탕이 왕관의 보석이나 되는 것처럼 쥐고 있구나. 자, 이제 손바닥 좀 펴 봐.” 찰리는 눈을 뜨고 사라가 사탕을 갖고 가서 막대에 끼워 넣는 것을 보았다. 막대는 휘어져서 두 개인 것처럼 보였고, 사라는 찰리에게 그 사탕을 조심스레 내밀었다.

“여기 있어.”

찰리는 막대사탕을 받아 들고는 입에 넣지 않고 손에 쥐고 있었는데, 그것은 막대가 휘어진 탓에 흔들거리면서 불안하게 보였다. 사라의 손을 내려다보고 부러진 손톱을 잡아당기기 시작했다. 바로 이 순간이 둘 사이에는 유사한 점들이 있었다. 똑 같은 계란형 얼굴, 둥그스름한 갈색 눈, 이마 위에 내려와 있는 갈색 머리, 코 위의 주근깨들. 잠시 후 찰리가 고개를 들었고 그 순간 환상은 깨져 버렸다.

여전히 막대사탕을 쥐 채로 찰리는 마당을 쳐다보았고 거기서 아침에 자기가 빨랫줄에 이불을 걸쳐서 만들어 놓은 텐트를 보았다. 찰리는 오래

된 하얀색 이불을 마당으로 갖고 나와 낮은 쪽 빨랫줄 위에 걸고는 그 밑으로 들어갔었다. 사라가 나와서 “찰리, 이불 아래 끝부분들을 이렇게 바닥에 고정시켜야지. 바람에 날리면 텐트가 아니야.” 라고 말하기 전까지 찰리는 이불이 바람에 훑날리면서 자신에게 불리는 채로 그 안에 앉아 있었다.

사실, 찰리도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었다. 찰리는 누나가 빨래집게를 들고 와서 그것들을 딱딱한 땅바닥에 망치질한 다음에 이불 끝부분들을 바닥에 고정시켜 줄 때까지 기다렸다. “자, 이제 텐트가 완성됐네.”

그 텐트는 찰리를 기쁘게 해주었다. 얇은 면 이불을 투과해서 들어오는 따스한 햇살과 머리 위에서 움직이는 나무 그늘로 거기에 있으면 나른하고 편안했다. 지금 찰리는 그런 텐트로 돌아가고 싶었다.

사라는 이번 여름에 대해 다시 말하기 시작했지만, 찰리는 듣고 있지 않았다. 찰리는, 누나의 목소리 억양으로 보아 지금 자기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다. 찰리는 천천히 일어나 마당을 가로질러 텐트를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다.

사라는, 색 바랜 청바지와 줄무늬가 있는 늘어진 니트 셔츠를 입고 있으며 열 살 치고는 작은 체구를 가진 찰리가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었다. 찰리는 금방이라도 꺼질 것 같은 초라도 들고 가는 양 막대사탕을 자기 앞에 들고 걸어가고 있었다.

사라가 말했다. “잔디 위에 사탕 떨어뜨리지 마! 그럼 정말 사탕을 버려야 돼.”

사라는 동생이 몸을 숙여 텐트 안으로 기어 들어가 앉는 것을 보았다. 지금은 해가 텐트 뒤에 있었고 사라는 찰리의 실루엣을 볼 수 있었다. 찰리는 조심스럽게 막대사탕을 다시 입에 집어넣었다.

사라는 베란다의 딱딱한 널빤지 위에 드러누워 멀리 위를 쳐다보았다.

### 제 3장

집안에서는 완다와 윌리 숙모가 아직도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다. 사라  
는 베란다에서도 그들이 말하는 것을 다 들을 수 있었다. 육년 전 엄마가  
돌아가신 후로 계속 그들을 돌봐주어 온 윌리 숙모가 큰소리로 외쳤다.  
“안돼, 오토바이는 안돼, 절대 안돼!”

사라는 얼굴을 찡그렸다. 사라가 싫어했던 것은 비단 윌리 숙모의 큰  
목소리뿐만 아니었다. 모든 것이 싫었다. 뭐든지 숙모 마음대로 하려는  
태도나 진심으로 귀 기울여 듣지 않는 태도, 말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 태도들이 다 싫었다. 한번은 ‘카터네(Carter's) 약국’에 갔을 때, ‘사  
라가 마그네슘이 많이 필요해요.’ 라고 숙모가 크게 외치는 바람에 그 안  
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들었다.

“오토바이가 아니라 스쿠터예요.” 완다는 어린아이에게 하듯이 참을성  
있게 말하고 있었다. “자전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안돼.”

“정말 안전한 스쿠터를 타고 반마일만 가면 된다고요.”

“안돼. 절대로 안돼. 안돼!”

“프랭크는 아주 조심성이 있어요. 여태껏 사소한 사고 한번 없었어요.”  
대답이 없었다.

“윌리 숙모, 이건 절대 안전해요. 프랭크는 그걸 타고 자기 엄마를 식  
료품 가게에도 데려다 줘요. 어쨌든, 저는 승낙 없이도 외출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고 숙모가 그것을 알았으면 해요. 저는 지금 19살이라고요.”

역시 대답이 없었다. 사라는 윌리 숙모가 머리를 좌우로 단호하게 흔들  
면서 싱크대 옆에 서 계실 거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윌리 숙모, 프랭크가 곧 도착할거예요. 호수에 백조 보러 가기 위해  
여기 오고 있단 말이에요.”

“너는 백조 보는 거 그다지 좋아하지도 않잖아.”

“좋아해요, 새를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치자. 그런데 그 백조들은 3일 동안이나 호수에 있었는데 너  
한번도 보러가지 않았잖아. 그런데 이제 와서 갑자기 이 도깨비 같은 오

토바이를 타고 백조를 보러 당장 떠나야 한단 말이지!”

“굳이 속도 말에 대답을 한다면, 보러가고 싶어서 거의 죽을 지경이었는데, 기회가 이제서야 온 것뿐이에요.” 완다는 부엌에서 나와 뒤에 닫혀 있던 여닫이문을 잡아 당겼다. “전 갈 거예요.” 완다가 어깨너머로 외쳤다.

완다는 집 밖으로 나와 방충망 문을 쾅 닫고는 바닥에 누워 있던 보이쉬를 넘어 맨 위 계단에 앉아 있던 사라 옆에 앉았다. “다른 사람이 좋아하는 꼴을 못 본다니깐!”

“맞아.”

“속도 때문에 너무 화가 나. 프랭크랑 스쿠터를 타고 그냥 백조만 보고 올 텐데.” 완다는 사라를 쳐다보고는 투덜대던 것을 멈추고 물었다. “찰리는 어디 갔어?”

“저기 텐트 안에 있잖아.”

“응, 이제 보이네. 속도가 나오시기 전에 프랭크가 서둘러 왔으면 좋겠네.” 완다는 일어서서 길가를 내려다보다가 계단위에 도로 앉았다. “심리학 수업을 같이 받는 저 남자가 찰리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는지 내가 말했니?”

사라는 자세를 똑바로 하였다. “어떤 남자애?”

“재 말이야, 이름은 아놀드 햄튼이야. 한번은 심리학 수업시간에 어린이에 대해 토론한 적이 있었어.”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찰리에 대한 얘기를 했던 말이야? 수업시간에? 웃긴다.” 사라는 찰리 때문에 꽤인 계단위의 두개의 흠 속으로 자기 발을 갖다대었다. “뭐라고 했어? ‘내 저능아 남동생에 대해 얘기해 줄게, 재미있겠지?’ 라고 말했어?” 그녀 생애에서 남동생과 관련해 “저능아”란 단어를 사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그래서 하얀 텐트 안에 있는 존재로부터 재빨리 시선을 돌렸다. 사라는 갑자기 얼굴이 화끈거림을 느꼈고 계단 옆에 있는 진달래꽃 덩불에서 나뭇잎 하나를 따서 이마에 갖다대었다.

“아냐, 그런 식으로 말하지는 않았어. 진짜야, 사라야.”

“‘저능아 동생에 대해 얘기하면서 정서가 불안한 여동생에 대해서도 말해줄게’ 라고 말했어?” 사라는 이마에 대고 있던 나뭇잎을 입술로 갖고 가 신경질적으로 붙였다.

“아니야, 솔직히 말하자면, 네가 그렇게까지는 매력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았어. 어쨌든, 우연하게도 아놀드의 아버지는 소아과 의사이고, 그래서 아놀드는 찰리와 같은 아이들에게 관심이 많아. 내년 여름에 찰리가 갈지도 모르는 캠프생활 시작을 아놀드가 도와준다고 했고, 그건 순전히 내가 심리학 시간에 찰리에 대해 얘기를 한 덕분이라고.” 완다는 함숨을 쉬었다. “넌 못 말리는 애야. 그거 알아? 내가 너에게 얘기한 게 잘못이지.”

“찰리는 우리 둘의 문제니깐.”

“찰리는 모든 사람들의 문제야. 그 누구도 - 아, 저기 프랭크가 온다.” 완다는 하던 말을 멈추고는 일어섰다.

“윌리 숙모에게 늦을 거라고 얘기해 줘.”

초록색 스쿠터를 타고 천천히 길 위로 올라오고 있는 프랭크에게 완다는 손을 흔들면서 황급히 집 앞 진입로로 걸어 내려갔다.



## 제 4장

“잠깐, 기다려. 너 거기 안서!” 윌리 숙모가 행주에 손을 닦으면서 베란다로 나오셨다. 숙모는 빨간 머리의 야윈 프랭크가 스쿠터를 멈출 때까지 맨 위 계단에 서 있었다. 프랭크가 내려서 세움 받침을 내리자 숙모가 소리쳤다. “프랭크, 잘 들어. 서두를 필요 없다. 완다는 오토바이를 타고는 아무데도 못 간다.”

“저기 윌리 숙모님,” 프랭크가 말했다. 대문을 열고 천천히 걸어 들어왔다.

“그냥 호수에만 다녀올게요. 가는 길에 고속도로를 달릴 필요도 없어요.”

“오토바이는 안돼.” 숙모가 말했다. “목뼈가 부러지고 싶으면 너나 그렇게 해. 그건 내가 알 바 아니니까. 하지만 내가 돌보고 있는 완다는 오토바이를 타다 목뼈가 부러지게 놔둘 순 없어.”

“아무도 다치지 않을 거예요. 아무 일없이 길을 따라 내려가 호수에 갔다가 되돌아 다시 무사히 집으로 돌아올게요.”

“안돼.”

“그러면 제가 제안 하나 할게요.” 프랭크가 말했다.

“무슨 제안?”

“스쿠터를 타 본적 있으세요?”

“내가? 나는 자전거도 타 본적이 없어.”

“이리 오셔서 타 보세요. 제가 숙모님을 태우고 템넨트씨 집까지 갔다가 다시 모시고 올게요. 그리고 나서 이것이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되시면 ‘프랭크, 이건 위험해’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제가 스쿠터를 가지고 멀리 사라져 드릴게요.”

숙모는 망설였다. 숙모 마음 한 구석에도 스쿠터를 타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사라는 진달래 나뭇잎을 입에 댄 채 말했다. “그럴 필요 없어요. 스쿠터를 타고 거리를 활보하기에는 숙모는 너무 늙었어요.”

사라는 즉시 자신이 실수했다는 것을 알았다. 왜냐하면 숙모가 신경질



적으로 자신을 돌아보았기 때문이다. “너무 늙어!” 숙모는 분개해서 사라를 쳐다보았다. “난 이제 경우 마흔 살이야. 사실이 아니라면 내 얼굴에 수염이 나도 좋아.” 숙모는 더 가까이 다가왔고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었다. “누가 감히 내가 늙었다고 했어?” 황소를 조롱하는 투우사처럼 숙모는 사라 앞에 행주를 들이밀었다. 행주는 공중에서 한번 휩 펠럭였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사라는 성가시다는 듯이 말했다. 그리고는 나뭇잎을 바닥에 버린 다음 발로 계단 밑으로 떨어뜨렸다.

“그럼 내 나이에 대한 말이 어디서 들렸지? 몹시 궁금한데.”

“어쨌든, 숙모님은 스쿠터를 탈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나이 드시지 않았어요.” 프랭크가 끼어들었다.

“어디 타보자.” 숙모는 행주를 의자위로 내던지고는 계단 밑으로 내려갔다. “목이 부러질지언정 어디 타보자.”

“꼭 잡으세요, 윌리 숙모.” 완다가 소리쳤다.

“꼭 붙들라고? 잘 들어. 세상에 태어나서 더 이상 꼭 잡을 수 없을 정도로 꼭 붙들 테니 걱정마라.” 숙모는 웃으면서 프랭크에게 말했다. “진짜, 이런 건 처음 타보네.”

“윌리 숙모님, 이건 단지 모터가 달린 아기 유모차와 다름없어요.”

“그래?”

“분명히 괜찮을 거예요.” 완다가 말했다. 그리고 찰리를 불렀다. 찰리가 텐트 밖을 내다볼 때까지 기다리다가 다시 말했다. “숙모 좀 봐. 숙모가 스쿠터를 타려고 해.”

찰리는 숙모가 스쿠터 뒤에 있는 안장에 걸터앉는 것을 보았다.

“준비되었죠?” 프랭크가 물었다.

“완전 준비 끝, 날 믿으라고, 자 출발, 출발.”

프랭크가 스쿠터를 앞으로 끌고 가 회전해 언덕을 내려가기 시작하자 숙모의 당당한 말소리는 날카로운 비명소리로 바뀌었다. 새 울음소리처럼 날카로운 숙모의 비명소리는 고요한 허공에 맴돌았다. “프랭크, 프랭크, 프랭크 으으으!”

숙모가 낸 처음 비명소리에 찰리는 비틀거리면서 일어나 언덕 밑으로 사라져가는 윌리 숙모를 놀라서 쳐다보았다. 찰리가 일어설 때 텐트의 한 쪽을 잡아당기는 바람에 다른 쪽 바닥에 고정되어 있던 집게가 풀려 이불이 빨랫줄에 흐늘흐늘 걸려 있었다. 찰리는 넘어질 듯 비틀거리다가 균형

을 잡았다.

완다가 찰리를 보면서 말했다. “괜찮아 찰리야, 숙모는 괜찮아, 재미있어 하시잖아. 오히려 좋아하시는데. 괜찮아.” 완다는 마당으로 걸어가 찰리 손을 잡고 계단이 있는 쪽으로 데리고 왔다. “뭘 이렇게 온통 묻히고 다니니?”

“끈적거리는 빨간 막대 사탕이야, 나한테도 다 묻었어.” 사라가 말했다.

“수돗가로 가자. 손 씻어 줄게. 봐, 숙모가 무사히 돌아오시잖아.”

테넌트씨 댁 앞에서 프랭크는 한 쪽 발을 회전축으로 중심을 잡으면서 스쿠터의 방향을 바꾸었다. 그리고 숙모는 테넌트씨에게 다 들릴 정도의 비명소리를 멈추고는 “버니 미치, 누가 오토바이를 타고 있는지 좀 봐 봐!” 라고 소리쳤다. 그리고 프랭크가 동산을 올라가기 시작하자 다시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다. 그들이 멈추었을 때 윌리 숙모의 비명소리는 웃음소리로 바뀌어 있었다. “흥, 늙은이라고, 내가! 늙은이!” 계속 웃으면서 숙모는 스쿠터에서 내려왔다.

“괜찮죠, 윌리 숙모님,” 프랭크가 말했다.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을 직감하면서 완다는 집 앞 진입로로 내려갔다. 숙모는 손에 배인 땀을 흔들어 떨어내고 있었다. “숙모, 이젠 가도 되죠?”

“응, 그래, 가거라, 가!” 웃음 반 꾸짖음 반 섞인 투로 숙모가 말했다. “마음대로 해라. 부러져도 네 목이 부러지지 내 목이 부러지냐.”

“숙모님이 걱정하셔야 될 것은 완다의 목이 아니라 제 팔이에요.” 프랭크가 말했다. “솔직히, 윌리 숙모님, 제 팔에 피 한 방울도 흐르지 않고 있다고요.”

“그래, 가라, 같이 가!”

“얼른 와, 내 사랑,” 프랭크가 완다에게 말했다.

윌리 숙모는 마당으로 들어와 사라 곁에 서서 완다가 스쿠터 뒤에 올라타는 것을 지켜보았다. 완다 언니와 프랭크가 출발하자 윌리 숙모는 다시 웃으면서 말했다. “다음번에는 네가 남자 친구와 함께 오토바이를 타고 데이트하러 가겠구나.”

사라는 웃고 있다가 즉시 멈추고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거예요.”

“글쎄! 안 그럴걸, 두고 봐. 완다 언니와 똑 같이 할 걸. 그럴 거야.”

“완다 언니하고 닮은 구석이 한 군데도 없다는 것을 보고도 모르세요?”

사라는 갑자기 주저앉더니 무릎에 입술을 갖다 댔다. “우린 너무 달라요. 완다 언니는 나보다 백배는 더 예쁘다고요.”

“너희 둘은 꼭 닮았어. 부엌에서 네 목소리를 들을 때 나는 종종 완다 목소리로 착각하지. 그것만 봐도 너희 둘이 얼마나 닮았는지 알 수 있어. 둘의 목소리를 구분할 수 있다면 오히려 내 귀가 이상한 거지.”

“목소리는 같을지 모르지만 그게 다예요. 나는 백 명의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어요. 이 소리를 듣고 누구의 목소리인지 알아 맞춰보세요. ‘N-B-C! 아름다운 시내 버뱅크.’”

“난 지금 알아맞히기 게임이나 할 기분이 아니다. 우리가 나누던 대화로 돌아가자. 중요한 것은 외모가 아니야. 들어 봐. 믿기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나에게도 아주 예쁜 여동생이 있었단다.”

“누구요?”

“누군가 하면, 프란시스야.”

“그 분을 빈 적이 있는데 그렇게 예쁘진 않던데요.”

“어렸을 때는 예뻐단다. 믿기 어려울 정도로 예뻐지. 그런 망나니가 없었지. 그리고...”

“외모는 너무 중요해요. 부모님들은 중요한 것은 외모가 아니라고 항상 말씀하시죠. 저도 내내 그 얘기를 들어왔어요. 외모는 중요하지 않아. 외모는 중요하지 않단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싶으면 머리를 완전 길게 길러 보던지 눈 화장을 도깨비 같이 짙게 한 후 사람들이 놀라서 지르는 비명소리를 한 번 들어보세요.” 사라는 갑자기 일어서서 말했다. “혼자 걸어서 백조나 보러 갈까 봐요.”

“글쎄, 내 말 아직 안 끝났는데요, 숙녀 아가씨.”

사라는 몸을 돌려 숙모를 보고, 뒷주머니에 손을 찌른 채 숙모의 대답을 기다렸다.

“아, 나 신경 쓰지 마라,” 윌리 숙모가 행주를 집어 들고 털면서 말했다. “그런 얼굴을 하고 있을 거면 차라리 이 행주와 얘기를 나누는 것이 훨씬 낫겠다. 백조 보러 가거라.” 숙모는 사라와의 실랑이를 그만두고 찰리에게 말했다. “애, 찰리야, 누나랑 백조 보러 가지 않을래?”

“찰리에겐 너무 힘들 거예요.” 사라가 말했다.

“천천히 걸어가렴.”

“항상 찰리를 데리고 다녀야 하니 뭐하나 혼자서 할 수가 없어요. 낮에

는 제가 밤에는 완다 언니가 내내 찰리를 돌보잖아요. 이 집에서 내 것이라고는 서랍 하나 밖에 없어요. 서랍 하나.”

“일어나, 찰리. 누나가 널 데리고 백조 보러 갈 거야.”

사라는 동생의 눈을 내려다보고는 말했다. “그래, 가자,” 그리고는 찰리를 일으켜 세웠다.

“기다려, 저녁에 먹다 남은 빵이 좀 있다.” 윌리 숙모는 집안으로 뛰어 들어가더니 빵 네 조각을 들고 돌아왔다. “여기, 이거 갖고 가거라. 찰리 보고 백조들 먹이로 주라고 해라.”

“자, 가자, 찰리, 서두르지 않으면 도착하기도 전에 어두워지겠다.”

“너무 서둘지 마라, 알았지?”

“알았어요.”

“찰리는 사라의 손을 잡고 천천히 집 앞 진입로로 내려갔다. 대문에서 잠시 주춤하다가 누나와 함께 보도로 걸어 나갔다. 둘이 언덕을 내려갈 때 찰리는 내내 발을 질질 끌며 걸었다.



## 제 5장

숙모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에 다다르자 사라가 말했다. “윌리 숙모는 자기가 뭐든지 다 안다고 생각해. 예쁜 완다 언니와 어찌면 그렇게 똑같이 생겼냐는 말을 듣는 것도 이젠 넌덜머리가 나. 언니는 정말 예뻐. 내가 이 세상에 누군가를 닮을 수만 있다면 그건 바로 언니의 외모를 닮고 싶어.” 사라는 길가에 길게 자란 풀을 걷어찼다. “그리고 확신하건대, 외모는 아주 중요한 거야.” 사라는 화가 나서앞에서 몇 발자국 걸어다가 찰리를 기다리고는 그의 손을 다시 잡았다.

“내 생각에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외모야. 귀엽게 보인다는 것은 그냥 귀엽다는 뜻이고, 영리하게 보인다는 것은 그냥 영리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그리고 별 특징이 없어 보인다면 그 사람은 그냥 별 볼일 없는 사람인거야.”

“나는 학교에서 언젠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외모’ 라는 주제로 작문을 한 적이 있는데, D 학점을 받았지. 최악의 학점 D 말이야.”

“수업이 끝나자 선생님은 나를 불러 놓고 ‘외모는 중요한 게 아니란다. 세상에서 아주 못 생긴 사람들 중에도 얼마나 똑똑하고 친절하고 현명한 사람들이 많은데.’ 와 같은 고리타분한 얘기를 또 늘어 놓으셨지.”

그들이 테넨트씨의 집 옆을 지날 때 집안에서 누군가가 텔레비전을 켜고, 누군가 소리를 줄이기 전까지 에디 알버트의 “초로오오오옥의 대지가 --”하는 노랫소리가 들렸다. 찰리는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프로그램 중 하나가 시작될 시간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고는 잠깐 멈춰 서서 사라를 올려다보며 기다렸다.

“가자” 사라가 말했다. “그리고 영어 과목 시간에 델마 루이스라는 여학생이 있었는데,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기’라는 제목으로 작문해서 A 학점을 받았어. A! 최고의 학점이지. 속이 뒤집히더라. 델마 루이스는 금발 머리에 자연스럽게 웨이브가 진 속눈썹을 갖고 있는 아주 예쁜 애야. 개가 뭘 알겠어? 어쨌든 한 번은 헤이즐이 델마의 집에 갔는데 델마 루이스가 항상 자기방의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에 빠져있다고 하니까 때문에 그 거울 앞에 놓인 카펫이 얇게 닳았다고 하더라.”

사라는 한숨을 쉬면서 계속 걸었다. 대부분 집들이 안전을 위해 모여 있는 것처럼 딱딱하게 붙어 있었고 집들 양옆으로는 웨스트버지니아 언덕이 우뚝 솟아있었는데 지금은 초저녁 어둠 때문에 까맣게 보였다. 노천광산이 언덕 위에서 시작되어 북쪽까지 이어져 있는 것만 제외하고는 그 언덕은 수백 년 동안 그래왔듯이 바위투성이의 숲이었고, 나무와 흙이 다 파헤쳐져서 흙이 다 씻겨나간 괴상한 모습의 괴리한 절벽들만 남아있었다.

사라가 멈춰 섰다. 둘은 이제 메리 위셋의 집 앞까지 왔고 사라가 말했다. “잠깐 멈춰 봐. 메리에게 할 말이 있어.” 메리의 녹음기 소리가 들렸다. 메리 방에서 계속 흘러나오는 노래를 들으면서 사라는 핑크색 물방울 무늬 침대 커버를 등지고 메리의 방을 올려다보려고 애썼다. “메리!” 사라가 불렀다. “나랑 찰리와 함께 연못가에 백조 보러 갈래?”

메리가 창문가로 왔다. “기다려, 금방 나갈게.”

사라는 메리가 마당으로 나올 때까지 길가에서 기다렸다. “사촌이 내 머리를 잘라주려고 지금 집에 와있어서 못 나가.” 메리가 말했다.

“근데 너 어제 옷 샀니?”

“아니”

“왜? 숙모가 사준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랬지, 근데 옷 가게에 가서 가격을 보고는 숙모가 그거랑 똑같은 옷을 만들어 줄 수도 있는데, 그 옷을 그렇게 비싸게 주고 사주실 수는 없데.”

“속상하겠다.”

“응, 불행히도 숙모는 그거랑 똑같은 옷은 못 만들거든. 흥내는 내실 수 있겠지. 그 옷 앞에 줄무늬들이 대각선으로 어떻게 함께 이어져 있었는지 기억하지? 어쨌든, 숙모는 옷감을 떠다가 무작정 자르기 시작했고, 나는 그 옷감의 줄무늬들이 하나도 맞지 않을 거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어.”

“오, 세상에.”

“숙모가 옷감을 자를 때부터 줄무늬들이 만나지 않을 것 같더라구. 그래서 ‘잘못됐어요. 숙모, 줄무늬들이 하나로 안 만날 거예요.’ 라고 계속 말했어. 내가 말하는 동안에도 내내 가위는 계속 춤을 추고 있었고 숙모는 중얼거렸지. ‘줄무늬는 만나. 만난다고.’ 그리고는 승리감에 찬 얼굴로

그것들을 들어올렸고 줄무늬는 하나도 맞지 않았어.”

“끔찍하구나, 네가 그 옷가게의 옷을 보여주었을 때 줄무늬가 서로 잘 맞아서 참 예쁘다고 생각했던 기억이 나는데.”

“나도 알아. 이제 숙모가 만든 옷을 입으면 내 몸의 반쪽이 다른 반쪽보다 2인치 가량이나 작게 보여.”

“있잖아, 안으로 들어와서 내 사촌이 머리를 어떻게 자르나 보지 않을래?”

“안 그러는 게 낫겠어. 찰리에게 백조를 보여 준다고 윌리 숙모와 약속했거든.”

“그래? 그냥 잠깐 들어와서 머리를 어떻게 자르나 보기만 해. 그녀는 온갖 헤어스타일이 다 나온 미용책도 갖고 있어.”

“글쎄, 좋아. 잠깐만이다. 찰리, 거기 그대로 앉아있어.” 사라는 계단을 가리켰다. “지금 거기 그 자리에서 꼼짝말고 있어. 알았지? 그 계단에서 움직이지 마. 일어서지도 마.” 그리고 나서 사라는 메리와 집안으로 들어가면서 말했다. “진짜 안되는데, 잠깐만이다. 찰리에게 백조를 보여주러 호수에 가야해. 그리고 늦지 않게 집에 돌아가서 내 테니스화를 검색해야 된단 말이야.”

“어떤 신발?”

“이거, 이 끔찍한 오렌지색 운동화. 이걸 신으면 내가 도널드 덕처럼 보이는 것 같아.”

## 제 6장

찰리는 갑작스런 정적 속에서 무릎위로 몸을 구부리고 맨 밑 계단위에 앉아있었다. 사라가 메리의 집으로 들어가자 온 세상이 꺼져버린 것 같았고 찰리는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오직 손목시계의 째깍거리는 소리만이 들릴 뿐이었다.

찰리에게 시계는 큰 기쁨이었다. 찰리는 시간을 볼 줄은 몰랐지만 째깍거리는 소리를 듣는 것을 좋아했고, 초를 세면서 다이얼을 도는 작고 빨간 시계바늘을 보는 것을 좋아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식사 후 시계태엽을 감아주라고 윌리 숙모에게 상기시켜 주는 것도 찰리였다. 지금은 자신의 다리위에 팔을 얹어놓고 시계를 보고 있었다.

찰리는 외로운 생각이 들었다. 낮선 곳에 혼자 있을 때면 항상 그런 느낌이 들었다. 망으로 된 문이 열리는 소리를 듣고 사라인 줄 알고 재빨리 몸을 돌렸다. 위섹 아줌마와 다른 아줌마가 보이자 찰리는 다시 몸을 돌려 시계를 보았다. 찰리가 몸을 구부리자 셔츠와 바지 사이로 반원형 모양의 창백한 속살이 보였다.

“알리, 이 꼬마는 누구예요?”

위섹 아줌마가 대답했다. “사라의 남동생 찰리야. 애에 대해 내가 얘기했던 거 기억하지. 애는 말을 못해. 세살 이후로 한 마디도 한 적이 없어.”

“전혀 말을 못 해요?”

“그 아이가 말을 한다면 누군가가 들었겠지만 그 아이가 아프고 난 후로는 아무도 들은 사람이 없어. 자기한테 말하는 것은 들을 수는 있고, 학교도 가고 알파벳을 쓸 수도 있다는데 말은 못해.”

찰리는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듣지 않았다. 찰리는 자기의 귀를 시계에 갖다대고 째깍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항상 그를 편안하게 해주는 이 규칙적으로 째깍거리는 소리에는 뭔가 의미가 있었다. 시계의 아주 작은 소리와 움직임들은 시끄러운 온 세상을 차단시켜주는 마력을 지닌 부적이었다.



위섹 아줌마가 말했다. “몇 시인지 물어봐, 어니스타인. 찰리는 자기 시계를 자랑스럽게 생각해. 동네 사람 모두가 재한테 시간을 물어봐.” 그리고 그는 기다리지도 않고 본인이 물어보았다. “몇 시니? 찰리야, 몇 시야?”

찰리는 몸을 돌려 순순히 시계를 끼고 있는 팔을 뺐어보였다.

“세상에, 여덟 시가 넘었네.” 위섹 부인이 말했다. “고마워 찰리야. 우린 모두 찰리 덕분에 시간을 안다니까. 찰리 없이는 못살 거야.”

위섹 부인과 어니스타인은 현관 앞에 있는 흔들의자에 앉아서 앞뒤로 천천히 움직였다. 의자와 삐걱거리는 바닥에서 나는 소리 때문에 찰리는

잠시 시계를 망각했다. 그는 천천히 일어서서 길 쪽을 바라보았다.

“찰리, 앉아서 누나를 기다리렴.” 위섹 부인이 말했다.

찰리는 부인을 쳐다보지도 않고 길가로 걸어 나가기 시작했다.

“찰리, 사라가 기다리라고 했잖아.”

“알리, 안 들리나봐.”

“아주 잘 들어. 찰리, 누나 기다려야지. 거기 서.” 위섹 부인이 외쳤다. “사라야, 동생 간다.”

사라는 이층 창문에서 밖을 내다보면서 말했다. “알았어. 찰리, 지금 나갈게. 조금만 기다려! 메리, 가야겠어.”

사라는 메리 집에서 뛰어 나와 찰리 팔을 잡았다. “집에 가서 뭐할래? 백조 보러 안갈 거야?”

찰리는 누나를 외면한 채 서 있었다.

“솔직히, 잠깐 동안 너 혼자 두었다고 가버리니? 자 이리와.” 사라가 찰리의 팔을 거칠게 잡아 당겼다.

둘이 함께 언덕을 내려가면서 사라는 창문가에 서 있는 메리에게 손을 흔들고 찰리에게 말했다. “이렇게 힘들게 백조를 보러갈 가치가 있는지 모르겠다.”

“우리가 거기에 도착할 때쯤이면 백조들은 가버리고 없을 지도 몰라.” 라고 사라가 다시 말했다. 둘은 조용히 걸었다. 잠시 후 사라가 말했다. “여기 들판을 가로질러 가자.” 사라는 찰리가 좁은 도랑 위를 조심스럽게 건너 올 때까지 기다렸다. 그리고 찰리와 사라는 나란히 들판을 가로질러 걸어갔다. 사라는 길게 자란 풀들을 계속 발로 차면서 갔다.

## 제 7장

백조에게는 너무도 아름다운 무언가가 있다. 찰리와 소나무 숲을 돌아와 어두워진 호수위에 있는 순백의 우아함과 너무나 편안한 백조들의 움직임은 보았을 때 사라는 거의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저기 백조들이 있어, 찰리.”

찰리가 손을 꼭 잡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찰리가 백조를 본 순간을 정확히 알 수 있었다. 메리의 집에서 나온 후 찰리는 이제야 처음으로 사라 손을 제대로 잡았다.

그리고 멈춰 섰다.

“백조들이다.”

여섯 마리 백조들이 호수 위에서 정지해 있는 것처럼 보였고 똑같은 각도로 목을 아치 모양으로 구부리고 있어 마치 한 마리의 백조가 다섯 개의 거울에 비친 것처럼 보였다.

“저기 백조들이 있다.” 사라가 또 말했다. 사라는 남은 여름 내내 찰리에게 백조들을 가리키면서 거기에 서있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라는 백조들이 천천히 호수를 가로지르는 것을 보았다.

“사라야!”

사라는 호수 건너편을 보았고 길가 쪽으로 나와 있는 완다와 프랭크를 발견했다. “잘 들어, 사라. 이번에 태어난 아기를 보러 프랭크 누나네 집에 간다고 숙모한테 전해.”

“알았어.”

“11시에 집에 갈게.”

사라는 완다와 프랭크가 다시 스쿠터에 올라타는 것을 보았다. 시끄러운 스쿠터 소리에 깜짝 놀란 백조들이 방향을 바꾸고는 사라 쪽으로 향해 왔다. 사라와 찰리는 좀 더 호수 가까이로 갔다.

“백조들이 이리로 온다. 찰리, 백조들이 너를 보고 있어. 분명해.”

스쿠터 소리가 희미해짐에 따라 사라와 찰리는 잠시 동안 조용히 백조들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사라는 잔디위에 앉아 요가자세로 다리를 꼬고는 오렌지색 테니스화 한 짝 안에 들어온 나뭇가지 하나를 빼냈다.

“앉아, 찰리. 거기 서 있지 말고.”

찰리는 자신의 앞쪽으로 다리를 우스꽝스럽게 구부리면서 풀밭 위에 앉았다. 사라는 빵 한 조각을 떼어내어 백조들에게 던져주었다.

“이제 백조들이 이리로 올 거야.” 사라가 말했다. “백조들은 빵을 정말 좋아하거든.”

사라는 잠깐 말을 멈추고 빵 한 조각을 입에 넣고 그것을 씹으면서 잠시 동안 앉아 있었다.

“나는 백조들이 여기로 날아올 때 봤어. 너도 알고 있었니, 찰리? 지난 금요일 현관 앞 베란다에 나와 하늘을 쳐다보았는데 백조들이 우리 집 쪽으로 날아오고 있었어. 백조들 모습이 진짜 웃기더라. 목을 길게 빼고 있으니깐 꼭 프라이팬 같더라고.”

사라는 빵을 찰리에게 건네주었다. “자. 백조들에게 먹이로 줘봐. 날 봐. 이렇게.”

사라는 찰리를 지켜보고는 말했다. “아니야, 찰리, 더 작게 던져줘. 백조들은 뭐가 목에 잘 걸려. 아니, 그건 너무 작아. 다 부스러지잖아. 자. 이렇게 해봐.”

사라는 찰리가 연못으로 빵을 던져주는 것을 보다가 말했다.

“이 백조들이 주로 어디서 사는지 아니? 어떤 큰 대학의 한가운데에 호수가 있는데, 거기서 이 백조들이 살아. 아무런 이유 없이 이따금 이 백조들은 날아서 다른 연못이나 호수로 간대. 이 호수는 그 대학에 있는 호수보다 반도 안 예뻐. 그런데도 여기로 와 있어.”

사라는 찰리에게 빵 하나를 더 주었다. “어쨌든, 그건 완다 언니의 생각이야. 대학에 있던 백조들이 사라졌거든.”

찰리는 몸을 돌려 백조에게 줄 빵을 하나 더 달라는 몸짓을 했고 사라의 마지막 남은 빵 하나를 주었다. 찰리는 빵을 크게 네 조각으로 나눠 호수로 던져주고는 또 달라고 손을 내밀었다.

“이젠 없어. 그게 다야.” 사라는 찰리에게 빈손을 보여 주었다.

백조들 중 한 마리가 머리를 물속으로 집어넣었다가 다시 올라 와 깃털을 털었다. 그리고 호수 위를 가로질러 갔다. 천천히 다른 백조들도 따라했다. 남은 빵 부스러기라도 건져보려고 긴 목을 물속 깊이 집어넣었다.

사라는 몸을 앞으로 숙이고 찰리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는 근육처럼 찰리의 몸은 부드러웠다. “백조들은 진짜 똑같

다.” 사라가 말했다. “진짜 아무도 이들을 구별할 수 없을 거야.”

사라는 찰리의 등을 천천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문지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갑자기 멈추고는 찰리의 어깨를 탁 쳤다. “자, 이제 집에 가자.”

호수 저편에 있는 백조들을 보면서 찰리는 꿈쩍도 하지 않고 앉아 있었다.

“가자, 찰리.” 찰리가 사라의 말을 들었어도 꿈쩍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가잔 말이야.” 사라는 일어서서 찰리를 내려다보았다. 찰리가 일어나는 것을 도와주려고 손을 내밀었지만 찰리는 쳐다보지도 않았다. 계속해서 백조들을 보고 있었다.

“일어나, 찰리. 이따가 메리가 집에 와서 신발 염색을 도와줄 거란 말이야.” 사라는 찰리를 보았다. 그리고 머리 위 나무의 큰 가지에서 나뭇잎 하나를 떼어 호수로 던졌다. 사라는 뒷주머니에 손을 집어넣고 기다리다가 피곤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그만 가자, 찰리.”

찰리는 사라를 쳐다보지도 않고 머리를 앞뒤로 천천히 흔들기 시작했다.

“메리가 신발 염색을 도와주러 올 거야. 지금 가지 않으면 염색할 시간이 없을 거야. 그렇게 되면 이 끔찍한 도널드 덕 신발을 계속 신고 다녀야 한단 말이야. 가자.”

찰리는 계속해서 머리를 앞뒤로 흔들었다.

“이래서 너를 데리고 다니고 싶지 않아. 집에 가자고 하면 가지도 않고.”

마치 사라가 자기를 일으켜 세우려고 하면 도움이이라도 받을 양 자기 옆에 있는 긴 풀들을 부여잡기 시작했다.

“너 정말 성가시게 군다. 그거 알아?” 찰리는 쳐다보지도 않았고 사라는 한숨을 쉬고 나서 말했다. “좋아, 딱 오분만 더 있다가 가는 거다?” 사라는 몸을 숙여 찰리가 손목에 차고 있는 시계를 보여 주었다. “이것이 오른쪽으로 가고 있지. 이 큰 침이 이쪽으로 가면 집에 가는 거야. 알았지?”

찰리가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했다!”

찰리가 다시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호수 위로 드리워져 있는 나무가 하나 있었고 사라는 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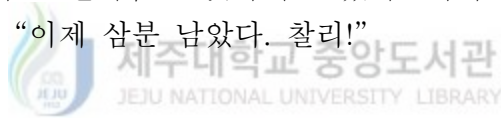
가서 나무에 기대어 섰다. “좋아, 찰리, 이제 사분 남았다.” 사라가 소리쳤다.

어두운 호수 위를 미끄러지듯 움직이는 백조를 보며 찰리는 이미 머리를 흔들기 시작했다.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사라는 발로 길게 자란 풀들을 앞뒤로 차기 시작했다. “찰리, 딱 한달만 있으면 여름은 끝나.” 사라는 찰리를 쳐다보지 않고 말했다. “그럼 난 너무 행복할거야.”

올해까지만 해도 사라의 삶은 별 탈없이 원만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았다. 사라의 생애에서 처음 14년은 똑같아 보였다. 사라는 질투심 없이 언니를 좋아했고 존스럽다고 생각하지 않고 숙모를 좋아했고 연민의 감정 없이 찰리를 좋아했다. 지금은 모든 것이 변해버렸다. 다시는 만족할 수 없을 것 같이 느껴지는 자신과 자신의 삶, 그리고 가족에 대해 사라의 불만과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사라는 얼굴을 돌려 백조들을 보았다. 갑자기 예상치 못한 눈물이 고여 백조의 모습이 하얀 원처럼 흐릿하게 보였다. 사라는 눈을 깜박거렸다. 그리고 소리쳤다. “이제 삼분 남았다. 찰리!”



## 제 8장

사라는 그날 저녁 완다가 방으로 들어왔을 때 불을 끈 채 침대에 누워 있었다. 사라는 아버지의 오래된 파자마를 소매는 자르고 바지 가랑이는 걷어 올려 입고 있었다. 완다가 살금살금 방으로 들어와 화장대 의자에 걸려 넘어질 뻔 한 것을 사라는 보고 있었다. 한 발을 절뚝거리면서 완다는 옷장 문을 열고 불을 켰다.

“큰 등을 켜도 돼. 나 안 자.” 사라가 말했다.

“이제야 말하는구나.”

“재미있었어, 언니?”

“응”

“애기 봤어?”

“너무 귀엽더라. 프랭크랑 꼭 닮았어. 안 믿기지.”

“가엾은 것.”

“아니야, 너무 귀여웠어. 빨간 곱슬머리가 너무 사랑스럽더라.” 완다는 후다닥 옷을 벗고 옷장 등을 끄고는 사라 옆에 누웠다. 베개를 평평하게 고르고는 천정을 보았다. “프랭크는 너무 자상해, 그렇지?”

“그래 팬찮아.”

“프랭크가 마음에 안 드니?” 완다는 한쪽 손을 머리 밑에 괴고는 큰 줄무늬 파자마를 입고 있는 사라를 내려다 보았다.

“팬찮다고 했잖아.”

“글쎄, 뭐가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든다고 안했어.”

“아는데, 그냥 마음에 안 드는 점이 있으면 말해봐.”

“한 가지 있는데, 프랭크는 찰리에게 전혀 관심이 없어. 아까 집 앞 진입로로 들어왔을 때도 찰리에게는 한 마디도 안 했어.”

“텐트 안에 있어서 찰리를 못 봤을지도 몰라. 그리고 프랭크는 찰리를 좋아해. 나한테 그렇게 말했어. 그리고 또 뭐가 있니?”

“이젠 없어. 근데 항상 너무 가식적이긴 해. 언니를 ‘내 사랑’이라고 부르거나 배우처럼 뭔가 의미 있는 표정을 지을 때 보면 말야.”

“나는 프랭크가 나를 ‘내 사랑’이라고 불러주면 좋더라. 나중에 누가 너를 ‘내 사랑’이라고 불러주면 생각이 달라질 걸.”

“키다리 줄리 그린을 빼곤 누가 나를 ‘내 사랑’이라고 부르겠어.”

“사라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중 내가 제일 크잖아.”

“누군가 나타날 거야.”

“그래, 운이 좋으면 남자들이 대문짝만한 발과 매부리코에 멀대 같이 키가 크고 깡마른 여자를 좋아하는, 이상한 외국에서 온 누군가를 만나겠지. 하지만 영화에서 보면, 여자들이 얇은 망으로 만든 블루머와 양철로 만든 브라를 입고 춤추는, 이를테면 세계에서 가장 이상하고 가장 낮은 나라에서조차도 여자들은 다 작고 예쁘단 말이야.” 그리고 사라가 덧붙였다. “어쨌든, 난 남자들이 싫어. 크기만 하지 별 볼일 없어.”

“사라, 도대체 뭐가 문제니?”

“아무 문제 없어.”

“아니야, 뭔가 있어. 진짜 문제가 뭐니?”

“모르겠어. 그냥 힘들어.”

“몸이 힘드니?”

“간호사처럼 좀 굴지 마.”

“그냥 알고 싶어서 그래.”

“몸이 힘든 것이 아니고 그냥 너무 힘들어. 막 소리치고 발로 걷어차고 펄쩍 뛰어올라 커튼을 다 떼어내 찢어버리고 벽에 망치로 구멍을 내고 싶어. 또 옷장에서 옷들을 다 끄집어내 불 태어 버리고 싶어.”

“그렇게 해서 기분이 좋아질 것 같으면 그렇게 해보지 그래!”

“그렇게 해서 풀릴 문제가 아니니깐 그렇지.” 사라는 맨 위에 있는 이불을 획 위로 걷어 올린 다음 공중에서 부풀어졌다가 몸 위로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사라는 이불이 다리 쪽 맨 살에 닿자 천의 촉감을 느낄 수 있었다. “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누구나 때로는 그렇게 느껴, 사라.”

“나처럼은 아닐 거야. 난 잘난 구석이 하나도 없어. 귀엽지도 않고 예쁘지도 않고 춤도 잘 못 추고 똑똑하지도 않고 인기도 없어. 잘난 구석이 라곤 하나도 없어.”

“설거지는 잘 하잖아.”

“시끄러워, 언니. 농담할 기분 아니야.”

“음-”

“뭔가 진지하게 말하고 싶은 것처럼 해놓곤 항상 웃기려고 해. 언니 항상 그래.”

“이제 안 그럴게. 자, 계속해봐.”

“우리 학교에 몇몇 여학생들을 보면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걸 알 수 있을 거야. 개네들은 꼭 모델들 같아. 옷은 너무 멋있고 열명이나 되는 남학생들로부터 파티나 무도회 초대를 받으며 개들이 걸어가면 모든 사람들이 얼굴을 돌려 쳐다본단 말이야.”

“아, 개들. 개들은 중학교 시절이 인생의 절정기인 거야. 머리를 높게 치켜세우고 아이라이너를 그리면 8학년 나이에든 아가씨처럼 보이지. 하지만 고등학생이 되면 그 얼굴들이 식상해져.”

“그럼 난 식상해질 염려는 없네.”

“중학교에서 인생의 절정기가 끝나는 것은 너무 슬픈 거 아니니?”

“애들아, 그만 좀 싸워라.” 숙모가 방에서 소리쳤다. “여기서도 다 들린다.”

“우리 싸우는 거 아니에요.” 완다가 대답했다. “조용히 얘기 좀 나누고 있는 거라구요.”

“나는 싸우는 소리를 들으면 척 알아낸다고. 진짜야. 싸우는 소리를 질리도록 들어왔고 방금도 그런 소리를 들었고. 조용히 하고 자라.”

“알았어요.”

둘은 조용히 누웠다. 사라가 말했다. “지금까지 내 인생의 절정기는 우유 당번을 했던 3학년 때였어.”

완다가 웃었다. “좀 더 기다려봐.” 완다는 손을 뺀어 라디오를 키고 소리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 “프랭크가 ‘다이아몬드룸 쇼’에 나를 위해 노래 신청을 할 거야.” 완다가 말했다. “라디오 소리가 거슬리니?”

“괜찮아.”

“근데 나한테는 거슬린다.” 윌리 숙모가 방에서 소리쳤다. “너희 둘은 시끄러운 라디오 소리와 다투는 소리에도 잠을 잘 잘는지 몰라도 난 아니야.”

“아주 작게 틀었어요, 숙모. 나도 라디오 소리를 들으려면 머리를 테이블위에 대고 있어야 할 정도라구요.” 완다는 숙모에게 하던 말을 갑자기



그만두었다. “신청곡이 뭐였니? 들었어?”

“아놀드 홀의 2층에 있는 모든 여학생들에게 보낸 곡이었어.”

“아”

“그러니까 내 말은.” 숙모가 외쳤다. “너희 둘, 그만 자거라! 완다, 내일 병원에 늦지 않게 출근하려면 일찍 일어나야 되잖아. 사라는 하루 종일 침대에서 뒹굴 수 있지만.”

“정각 여덟 시만 되면 날 깨우면서 어떻게 하루 종일 침대에서 뒹굴 수 있다는 거야.” 사라가 투덜거렸다.

“숙모, 나를 위한 신청곡 하나만 듣고 잘게요.”

조용했다.

사라는 이불을 잘 덮고 옆으로 돌아누워 눈을 감았다. 아직 졸리지 않았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 소리와 옆방에서 찰리가 돌아눕는 소리도 들렸다. 그리고 자세를 편하게 하려고 다시 돌아눕는 소리도 들렸다. 사라는 베개를 머리 위로 잡아당겼지만 시끄러운 소리들은 여전히 들렸다. 찰리 방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이상하게도 아주 크게 느껴졌다.

찰리는 잠을 잘 못 잤다. 세살 때 찰리는 연속해서 두 가지 병을 앓았다. 열이 너무 심해 죽을 뻔했고 두뇌에 손상을 입었다. 그 후 찰리는 조용히 누워있었고 지금도 침대에 누워있다.

성격이 급하고 흥분도 잘하고 소란스럽던 애가 파리한 모습으로 변한 것을 보는 것이 사라에게는 익숙하지가 않았었다. 한때 반짝반짝 빛나던 눈은 앞에 뭐가 있어도 천천히 움직였고 찰리가 가장 좋아하는 강아지 인형 ‘부부’를 사라가 보여줘도 찰리는 팔을 뻗지 않았다. 찰리는 잘 울지 않았고, 웃는 일은 더구나 없었다. 다시는 잠을 자지 않음으로써 내키지 않는 침대에서의 세월들을 보상이라도 받으려는 듯이 보였다.

사라는 찰리가 발로 벽을 쿵 차는 소리를 들었다. 이 소리는 몇 시간 동안 계속되기도 하는 소리였고 벽을 등지고 누워 있는 사라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들을 수 없을 정도로 희미한 소리였다. 한숨을 쉬며 사라는 베개를 도로 머리 밑에 놓고 천정을 올려다보았다.

“방금 노래가 나를 위한 신청곡이었어. 들었니?” 완다가 속삭였다. “프랭크가 사랑하는 이에게.”

“우웁”

“난 너무 달콤하기만 한데.”

벽을 차는 소리가 멈추었다가 다시 시작되었다. 이 소리는 사라에게는 익숙한 것이었지만 오늘밤은 이상하게 시끄럽게 느껴졌다. 어느새 사라는 오랜 투병 생활 끝에 찰리가 어떻게 처음으로 발로 벽을 차게 되었는지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다. 한발로 끊임없이 벽을 차는 행동. 이불 밑에서는 거의 들을 수 없을 정도로 약한 움직임이었지만 지금 이 밤에는 온 집안을 흔들어 놓는 것처럼 크게 느껴졌다.

“저 소리가 안 들리진 않겠지.” 완다에게 말했다. “어떻게 찰리가 벽을 차는 소리가 안 들린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돼.”

조용했다.

“언니, 자?”

조용했다.

“솔직히 어떻게 사람들이 자려고 맘만 먹으면 잠들 수 있는지 이해가 안돼. 언니, 진짜 자?”

사라는 기다리다가 이불을 목까지 잡아당기고는 벽 쪽으로 돌아누웠다.



## 제 9장

찰리는 자기 방에서 아직도 발로 벽을 차며 누워 있었다. 찰리는 잠들지 않고 그림자들이 움직이고 있는 천정을 올려다보았다. 찰리는 항상 쉽게 잠들지 못 했지만 오늘 밤은 과자마의 단추 하나가 떨어진 게 걱정이 되어서 더욱 잠들 수가 없었다. 잘 준비를 하고 윌리 숙모에게 단추가 떨어진 자리를 보여주었지만 숙모는 찰리 어깨를 토닥이면서 말했다. “내일 달아 줄게.” 그리고 텔레비전에서 하는 게임 쇼 프로그램으로 다시 시선을 돌렸다.

“저것 좀 봐.” 윌리 숙모가 혼잣말을 했다. “그 사람 이름 절대 못 맞출걸. 어떻게 유명 인사들이 저렇게 바보 같지?” 숙모는 몸을 앞으로 숙이고는 출연자들을 향하여 소리쳤다. “클릭 게이블이잖아! 가게에서 일하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는데도 몰라? 클릭이라고 하잖아. 클릭 게이블, 클릭 게이블이잖아!”

찰리는 숙모 어깨를 툭툭 쳤고 다시 과자마를 보여주려고 했다.

“내일 달아 줄게, 찰리.” 숙모는 저리 가라는 손짓을 했다.

찰리는 부엌으로 갔고, 거기서 사라는 싱크대에서 테니스화를 염색하고 있었다.

“나한테 보여주지 마.” 사라가 말했다. “지금 나 아무것도 볼 수 없어. 그리고 메리, 너는 테니스화 보고 웃지 마.”

“못 참겠어. 신발이 너무 엽기적이잖아.”

사라는 싱크대에서 손가락 두개로 운동화를 들어올렸다. “엽기적인 거 나도 알아. 오렌지색은 옅은 하늘색으로 염색되지 않는다고 말해주지 그랬어. 이것 좀 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끔찍한 색 처음 보지, 그렇지?”

“그래 맞아.”

“그렇게 기다렸다는 듯이 맞다고 할 필요는 없잖아. 오렌지색은 옅은 하늘색으로 염색될 수 없다고 염색약 포장지에 써있었던 것도 아니고, 일종의 경고문 말이야!”

“써 있어.”

“큰 글씨로 써 놔야지. 이 신발 좀 봐. 이 끔찍한 색깔에 맞는 이름이 있을 텐데.”

“있어.” 메리가 말했다. “암갈색”

“뭐?”

“암갈색.”

“메리 위섹, 네가 만들어낸 거지?”

“아니야, 원래 있었어.”

“이 신발에 딱 어울리는 이름이네. 암갈색. 딱 암갈색 신발이다. 그치?”

사라는 신발을 신문 위에 올려놓았다. “이 신발은—, 찰리, 비켜. 안 그럼 너까지 염색해 버릴 거야.”

여전히 파자마 상의를 내민 채 찰리는 뒤로 물러섰다. 이처럼 찰리가 될 하려고 해도 누구의 관심도 받을 수 없는 순간들이 있었다. 찰리는 사라의 팔을 잡았지만 사라는 뿌리쳤다.

“찰리, 나한테는 단추도 없어. 그러니까 저리 가.”

불만으로 가득 찬 찰리는 천천히 방으로 가 침대에 누웠다. 거기서 찰리는 비어있는 단추 구멍을 걱정스럽다는 듯이 잡아당겨서 파자마 상의 앞면이 다 찢어져 속살이 훤히 드러다보였다. 찰리는 이제 파자마 단추가 채워진 부분만 손으로 겹쳐 쥐고서 천정을 올려다보았다.

그러다가 정각 한 시가 되었고 찰리는 거기에 세 시간 동안이나 누워 있었다.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고 그 때 찰리는 비로소 파자마에 대해 잊어버렸다. 발로 벽을 차는 것을 멈추고 일어나 앉아 창문 밖을 내다보았다. 덩불 속에 하얀색 무엇인가 있었고 그것이 움직이는 것을 보았다.

손에 쥐고 있던 파자마를 놓고 창문틀을 짝 잡았다. 창문 너머 나뭇잎들 사이로 천천히 움직이는 백조 한 마리를 보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갑자기 호숫가에서의 감미로웠던 기억이 떠오르면서 그를 편안하게 해주었다.

침대에서 걸어 나와 또 다른 창문 곁으로 갔다. 이 때 찰리는 ‘야옹’하는 고양이 소리를 들었고 옆집 후친슨씨네 하얀 고양이를 보았지만 거기에는 별 신경이 쓰이지 않았다. 조금 전에 본 것이 분명 백조였음에 틀림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방금 그가 본 것이 그냥 고양이였다고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찰리는 계속 백조들을 찾으며 얼굴을 방충망에 들이밀었다. 그 아름다운 자태, 순백색, 부드러움 그리고 잔잔한 화려함이 너무나 인상적이었기 때문에 또 호숫가로 가서 길게 자란 풀밭 위에 앉아 기다리고 있는 백조들에게 빵을 던져주고 싶었다.

찰리는 창문 밖에 있던 백조들이 갑자기 자기를 찾으러 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침대 곁으로 가서 앉고는 천천히 실내용 슬리퍼를 신기 시작했다. 그리고 복도로 걸어 나갔다. 찰리가 리놀륨이 깔린 복도를 지나 거실로 들어갈 때 신발 끌리는 소리가 조용히 났지만 아무도 듣지 못했다.

집안으로 시원한 공기가 들어오도록 현관문이 열려있었고 방충망만 걸쇠가 걸려 있었다. 찰리는 그 걸쇠를 들어올리고 문을 밀어 현관 밖으로 나아갔다. 부엌에서 자고 있던 보이쉬가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듣고 거실로 나갔다. 현관 앞에 있는 찰리를 보자 코를 킁킁 거렸고 문을 긁어댔다. 잠시 기다리다 부엌으로 돌아가 싱크대 앞에 있는 자신의 깔개 위에 몸을 둥글게 말고 누웠다.

찰리는 현관 앞 베란다로 걸어 나가 계단 위에 앉았다. 그리고 기다렸다. 백조들이 계단으로 올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조금해 하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오질 않자, 찰리는 세 번째 계단 위에서 초조하게 발을 앞뒤로 문지르기 시작했다.

갑자기 찰리는 덩불 속에서 하얀 무엇인가를 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벌떡 일어서서 난간을 잡고 계단을 내려가서는 마당으로 걸어 나갔다. 찰리가 덩불 안을 살펴보았지만 백조들은 없었다. 그냥 고양이였다. 나뭇잎들 뒤에 웅크리고 앉아 길게 찌진 눈으로 찰리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찰리는 거기 서서 고양이를 쳐다보았다. 백조들이 어떻게 된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찰리는 손으로 파자마 상의를 위아래로 문지르면서 찢어진 파자마 조각을 잡아당기고 있었고 고양이는 덩불 속으로 쏜살같이 달아나더니 사라져 버렸다.

잠시 후 찰리는 몸을 돌리더니 마당을 가로질러 천천히 걸어 나갔다. 그리고는 대문으로 가서 멈춰 섰다. 찰리는 뜰 밖으로 절대 나가지 말라는 소리를 수천 번이나 들었지만, 거리위에 시끄러운 차량들이 다니는 대낮에만 해당될 수 있는 그런 훈계는 지금 이 순간에는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았다. 그를 혼란스럽게 했던 쏜살 같이 달리는 자전거 소리, 시끄러운

소음들, 잔디 깎는 기계 소리, 강아지 짖는 소리, 시끄럽게 떠드는 어린아이 소리들은 그 은은한 어둠 곳으로 사라져버렸고, 고요함과 어스름한 은색의 달빛만이 있을 뿐이었다. 찰리는 열정적인 활동을 하는 대낮의 세계보다 이런 조용한 세계에 훨씬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았다.

찰리는 천천히 대문을 열고 나갔다. 후친슨씨 집을 지나 테넨트씨 집, 위섹씨의 집을 지나쳤다. 미풍이 불어왔고 위섹씨 집의 향긋한 꽃 내음이 공기 중에 퍼져있었다. 다음 집을 지나면서 잠시 멈췄고 갑자기 혼란스러워졌다. 그리고 에이키씨의 집 옆에 있는 공터 쪽으로 들어갔다. 어둠 속에서 보니 그 곳이 지난 초저녁에 백조를 보러 가던 길에 사라누나와 함께 가로질러 갔던 그 들판처럼 보였던 것이다.

찰리는 그 공터를 지나 나무가 우거져 있는 곳으로 들어갔고 나무들 사이로 천천히 걸어갔다. 찰리는 여기를 빠져나가면 조금 후에 호수가 보이고 검푸른 호수 위에서 미끄러지듯 움직이고 있는 하얀 백조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철썩 같이 믿고 있었다. 그래서 찰리는 호수가 곧 보일 거라 생각하면서 앞을 보면서 계속 걸어갔다.

길이 점점 울퉁불퉁 해지고 있었다. 돌부리에 걸려 넘어질 만한 돌들이 있었고 빗물로 생긴 도랑들, 생각지도 않은 쓰레기더미들도 있었다. 하지만 찰리는 여전히 백조만을 생각하면서 계속 걸어갔다.

## 제10장

찰리는 점점 지쳤고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호수는 없었다. 잠시 멈춰 서서 들판을 둘러보았지만 모든 것이 낯설었다.

오른쪽으로 돌아 언덕을 오르기 시작했다. 갑자기 개 한 마리가 뒤에서 쫓았다. 갑작스런 큰 소리에 깜짝 놀라서 뒤로 한 발자국 물러섰다가 다시 뛰기 시작했다. 또 다른 개가 쫓아왔고 또 다른 개가 또... 그 개들이 어디 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찰리는 겁에 질려 점점 우스꽝스러운 동작으로 뛰었고, 그가 허공을 가로지르면서 손으로 팔들을 내리치는 모습은, 느리게 움직이고 있는 그의 발만 빼고 그의 모든 것들이 뛰어가고 있는 듯이 보이게 했다.

온 사방에서 개 쫓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기 때문에 찰리는 미로에 빠진 야생동물처럼 일단 한 방향으로 달리다가 또 다른 방향으로 달리곤 하였다. 찰리는 덤불 속으로 들어갔고 가시에 얼굴과 팔이 찢렸다. 찰리는 아마 해도 이런 것들이 그 개들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했기에 살갓이 찢기는 것도 모르고 팔을 더욱 세차게 휘둘렀다.

찰리는 그곳을 벗어나려고 빙빙 돌면서 비틀거렸고, 그러다가 다시 허공을 허우적거리면서 달렸다. 이제 개 쫓는 소리는 점점 희미해졌지만 겁에 질린 찰리는 그 사실도 몰랐다. 덤불 속에서, 그리고 나무에 부딪혀 넘어질 듯 비틀거리면서, 나뭇가지에 걸리고 보이지 않는 돌맹이들을 차면서 무턱대고 달렸다. 그러다가 마침내 찰리는 그 미로에서 빠져나오게 되었고 비로소 속력을 내서 달릴 수 있었다.

오랫동안 달렸고, 그러다가 갑자기 철망으로 된 울타리에 부딪혀 가슴 쪽이 날카롭게 찢겼다. 찰리는 깜짝 놀라 땅바닥으로 내동댕이쳐졌고 맨살이 드러난 가슴 위에 두 손을 얹고 앉아 숨을 헐떡거렸다.

저 언덕 밑에서는 누군가가 개들에게 말을 하고 있었고 점점 조용해졌다. 지금은 자신의 거절거리는 숨소리만이 날 뿐이었다. 찰리는 숨소리가 편안해질 때까지 등을 구부리고 앉아 있다가 잠시 후 똑바로 앉고는 집을 나선 후 처음으로 파자마가 찢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아챘다. 찢긴 상처를

진정시키려는 듯 너털너털해진 파자마 상의의 테두리로 가슴을 감쌌다.

조금 후 천천히 일어나 잠시 서 있다가 그 철망 울타리 옆 언덕을 따라 걸어 올라가기 시작했다. 넘어졌을 때 슬리퍼 한 쪽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발을 절뚝거리고 있었다. 울타리가 갑자기 끝났다. 아주 오래 전에 세워진 울타리였기 때문에 지금은 일부분만 남아 있었던 것이다. 울타리가 없어지자 찰리는 안도했다. 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을 마치 그 울타리가 가로막고 있는 듯 했다. 찰리는 바닥에 길게 뻗어 있는 철사 조각들을 넘어 울타리 너머에 있는 숲을 향해 걸어갔다.

숲 속에 있어서 찰리는 잠시 동안 기분이 좋았다. 나뭇잎 사이로 비치는 달빛과 나뭇가지 사이를 스치는 잔잔한 바람소리에 마음이 편안해졌다. 하지만 숲 속으로 깊이 들어갈수록 걱정스러워졌다. 그가 모르는 뭔가가 낯선 냄새와 여태껏 들어본 적이 없는 소음들이 있었다. 찰리는 멈춰섰다.

찰리는 꼼짝하지 않고 나무 밑에 서서 주위를 살폈다. 자기가 대체 어디에 와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었다.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조차 알 수가 없었다. 하룻밤 내내 기나긴 싸움을 한 것 같은데 왜 그런 싸움을 했는지도 도무지 기억할 수가 없었다. 뭔가를 원하긴 했는데 그게 무엇이었던지도 기억할 수가 없었다.

얼굴과 팔이 들장미에 찢려 급혀 있었고, 울퉁불퉁한 땅위를 걸어본 적도 없는 부드러운 맨 발 한 쪽은 이미 찢겨서 따가웠지만 무엇보다도 찰리는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었다. 자기 방으로, 침대로 돌아가고 싶었지만 집을 영원히 잃어버린 것 같았고, 빠져나가는 길을 도무지 찾을 수 없는 이 숲과 집은 완전히 차단되어 있는 것처럼 보였다.

찰리는 손목을 귀에 갖다 대고 시계 소리를 들었다. 하지만 계속 똑딱거리고 있는 소리도 오늘 밤 찰리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다. 찰리는 찢긴 파자마로 어깨를 더 단단히 감싸고 나무들 사이로 천천히 언덕을 올라가기 시작했다. 걸어가면서 찰리는 소리 없이 흐느끼기 시작했다.



## 제 11장

사라는 아침에 천천히 일어나 방바닥으로 내려가기 전에 두 발을 침대 끝에 걸쳐 놓고 있었다. 그리고는 방을 걸어 나가다가 화장대를 지나칠 때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기 위해 잠시 멈춰 섰다. 귀 뒤쪽에 있는 머리카락을 매만졌다.

자신의 모습을 유심히 보면서 자기가 한 가장 큰 실수 중의 하나는 머리를 자른 것이었다고 생각했다. 사라는 어떤 잡지에 나온 사진 한 장을 갖고 벤틀리에 있는 미용학원으로 가서 그 사진과 똑 같이 잘라주라고 했었다.

“어휴, 이게 뭐야!” 집에 돌아왔을 때 사라는 비명을 질렀다. “이게 뭐야! 완전히 망쳤어!”

“그렇게 나쁘진 않아,” 완다가 말했었다.

“솔직히 말해봐. 자, 이 사진 좀 보고 솔직히 말해봐. 뭐 조금이라도, 하다못해 눈썹만치라도 이 모델처럼 보여?”

완다와 윌리 숙모는 사라가 전혀 그 금발머리의 모델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완전히 망쳤어, 완전히. 왜 그렇게 멋있는 잡지 사진을 가져갔는데도 그 사진이랑 똑 같이 자르지 못하고 사람을 망쳐 놓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 그 여잔 미용학원에서 낙제할 거야.”

“솔직히 말하면, 머리는 사진의 헤어스타일과 비슷한데 얼굴과 몸매가 너무 다른 거야.”

“시끄러워 언니. 웃기려고 좀 하지 마.”

“웃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이 그래.”

“네가 그렇게 웃긴 파마를 하고 왔을 때 그에 맞는 표현을 못했던 것 같아.”

“했어. 젠틀 벤 이라고 했잖아.”

“그건 칭찬이었는데.

“됐다, 애들아, 이제 그만해. 그만 좀 싸워라. 진짜, 그만해.”

사라는 이번 헤어스타일의 실수가 얼마나 큰 것이었는가를 생각하면서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그리고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다. 마치 짹짹거리는 새를 항상 쫓아다니다가 증기롤러에 깔려 완전히 납작해지는, 만화에 나오는 고양이 같다고. 이 헤어스타일과 납작한 얼굴 때문에 내가 꼭 —

“사라!” 윌리 숙모가 부엌에서 불렀다.

“왜요?”

“와서 아침 먹어라. 찰리도. 내가 점심때까지 한 사람 한 사람씩 아침 밥 챙겨주면서 계속 여기 있어야만 하겠니?”

“알았어요.”

사라는 복도로 가서 찰리의 방을 들여다보았다.

“찰리!”

찰리는 침대에 없었다. 거실로 가보았다. 찰리는, 최근에 텔레비전 켜는 방법을 배운 후로 아침 일찍 일어나 거실에서 혼자 텔레비전을 보곤 했다. 하지만 찰리는 거실에도 없었다.

“찰리 벌써 일어났나 봐요. 숙모.”

숙모는 부엌에서 오트밀 죽을 두 개의 그릇에 담고 있었다.

“또 오트밀 죽이네,” 사라가 투덜댔다. “난 쿨에이드와 토스트 먹을래.”

“말도 안 되는 소리하지 마. 그건 그렇고 찰리는 어디 있니?”

“방에 없어요.”

숙모는 한숨을 쉬었다. “얼른 찾아봐.”

“내 신발 먼저 좀 봐야겠어요.” 사라는 싱크대로 가서 운동화를 쳐다보았다. “음, 끔찍하군. 숙모 이것 좀 봐요. 너무 촌스러워요.”

“그냥 두지, 그렇게 왜 염색을 해. 옷 염색하면서 내가 배운 게 있는데 그걸 말해줄게. 베르트 아저씨 장례식장에서 내가 보라색 드레스를 입어야 했던 거 기억하지?”

“이걸 무슨 색이라고 해야 해요?”

“지금 그거 말할 시간 없다. 찰리 데리고 와.”

“이 색 이름이 있어요. 그냥 숙모가 아는지 궁금해서 그래요.”

“모른다, 그래. 가서 동생이나 데리고 와라.”

“세 가지 보기를 줄게요. 그러니까 석류 색, 포메라니아 색 아니면 암갈색 중 하나예요.”

“암갈색. 이제 어서 가서 동생 데리고 와.”

“어떻게 알았어요?”

“내 숙모가 쌍둥이 포메라니아 개를 유모차에 태우고 다니면서 키웠고 또 언젠가 석류를 먹어 본 적이 있으니까 알지. 얼른 동생 데리고 와.”

사라는 신발을 내려놓고 복도로 갔다. “찰리!” 방안을 다시 둘러보았다. “찰리!” 현관 앞 베란다로 가서 찰리의 텐트를 보았다. 텐트는 밤새 바람에 불려 떨어져 있었고 찰리는 없었다.

사라는 천천히 복도로 다시 걸어가서 방마다 들여다보고는 부엌으로 갔다.

“숙모, 찰리가 없어요.”

“무슨 소리야? 없다고?” 아침 식사에 늦는다고 들을 꾸짖으려던 숙모는 오트밀 죽 냄비를 테이블 위에 툇하고 내려놓았다.

“방에도 없고 마당에도 없고 어디에도 없단 말이예요.”

“장난이기만 해봐라. 내가 —” 숙모가 말했다. 숙모는 사라를 스쳐 지나면서 거실로 갔다. “찰리! 어디 있니? 찰리!” 찰리 때문에 종종 느꼈던 불안감이 불현듯 찾아들자 숙모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기 시작했다. “어디 갔을까?” 숙모는 몸을 돌려 사라를 보았다. “장난이면 너....”

“장난 아니예요.”

“글쎄, 작년 4월 만우절을 기억하는데. 그 때 그랬었잖아”

“옆집 어디에 있을 거예요. 지난번에 완다 언니가 아무 말도 않고 찰리를 가게에 데리고 갔던 것처럼요.”

“오늘 아침에는 완다가 찰리를 데리고 가지 않았어.” 숙모는 복도로 걸어갔고 찰리의 방을 쳐다보며 서 있었다. 빈 침대를 보고 있었다. 도대체 찰리가 어디로 사라졌는지 영문을 알 수가 없어서 숙모는 잠시 꿈쩍도 않고 서 있었다. “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다면...”

“아무 일도 없을 거예요.”

“그럼 애가 아딜 간 게지?”

사라는 아무런 대답도 없었다. 찰리가 혼자선 한 번도 밖에 나간 적이 없었기에 사라는 찰리가 있을 만한 장소도 떠올려 볼 수가 없었다.

“사라, 밖에 나가서 찾아 봐! 근처에도 없으면 경찰에 신고해야 되겠어.”

“숙모, 찰리가 없다는 게 확실해질 때까지는 제발 신고하지 마세요.”

“신고해야겠어. 뭘 일이 일어난 거야.”

사라는 파자마를 벗고 바지와 셔츠를 순식간에 입었다. 바닥 위에 파자

마를 벗어 놓은 채 맨 발로 마당으로 달려 나갔다.

“찰리! 찰리! 집 주위를 뛰어 다니다가 갑자기 멈췄다. 이 때, 불현듯 백조가 떠올랐고 사라는 다시 집 안으로 달려 들어갔다.

“숙모, 틀림없이 백조를 보러 호수에 갔을 거예요.”

숙모는 통화 중이었고 한 손으로 수화기를 막은 채 말했다. “가서 얼른 찾아 봐!”

“벌써 경찰에 신고하는 건 아니죠? 사라가 현관 입구에서 물었다.

“경찰하고 통화하는 건 아니지만, 네가 돌아오면 할 거야. 시간 허비하지 말고 얼른 가 봐!”

“얼른 신발 먼저 신고요.”

사라는 부엌으로 뛰어가 아직 젖어 있는 운동화를 신었다. 그리고는 집 밖으로 나가 길가로 뛰어 내려갔다. 위섹씨의 집을 지날 때 메리가 현관 앞 베란다에 나와 있었다.

“뭐가 그렇게 급하니?”

“찰리가 없어졌어. 찰리가 호수로 갔는지 보러 가는 거야.”

“같이 가자.” 메리는 계단을 내려와 어깨 너머로 소리쳤다. “엄마, 사라랑 찰리 찾아보고 올게요.”

“머리에 그렇게 컬러를 하고? 안돼!”

“엄마, 스카프 쓰고 있어요. 이거 말고 있는 거 아무도 모를 거예요.”

“그래, 모두들 네 머리가 원래 울퉁불퉁한 줄 알겠지.” 사라가 말했다.

“아, 그만. 근데 찰리가 어떻게 된 거니?”

“오늘 아침에 찰리가 사라졌고, 내 생각에는 찰리가 밤중에 일어나 백조를 보러 간 것 같아. 호수에서 돌아올 때 무지 싫어했거든.”

“알아. 지난밤에 네가 찰리를 질질 끌고 걸어가는 거 봤어.”

“어쩔 수 없었어. 그렇게 해서라도 집에 데리고 와야 했던 말이야. 깜깜해서 백조를 볼 수도 없는데 집에는 안 가려고 하잖아.”

“무사해야 할 텐데.”

“아마도 손에 풀을 권 채로 백조를 보면서 거기 앉아 있을 거야. 또, 계속 비명을 지르는 찰리를 질질 끌고 언덕을 올라 와야 하겠지. 뭔가 원할 때 찰리는 굉장히 힘이 세져. 너도 알지?”

“어머나, 너 신발 신었니?”

“응, 근데 아직 축축해.”

“오늘 하루가 가기 전에 네 발이 모두 암갈색으로 물들 거야.”

“내가 원했던 바야.”

그들은 가던 방향을 바꿔 언덕 밑에 있는 들판을 가로질러 갔다.

“서두르자. 지금 윌리 숙모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대기 중이야.”

“그래?”

“지금 전화기 옆에 앉아 계셔. 비상 전화번호가 적혀 있는 작은 카드를 꺼내 들고는 손가락으로 경찰서 번호를 가리키고 계실 걸.”

“나이든 한 아저씨가 숲 속에서 실종됐던 거 생각나? 이름이 뭐였더라?”

“영클 뭐였는데.”

“그래서 남자 대학생들이 수색대를 만들고 적십자사가 커피와 필요한 것들 일체를 제공했는데 다음 날 아침 보니 아저씨 집에서 자고 있었잖아. 그 아저씨 소풍 갔다가 지루해져서 집에 돌아간 거였잖아.”

“그렇게 다시 말하지 않아도 돼. 그래, 숙모가 경찰에 신고하자마자 찰리가 욕실이나 어디 다른 곳에서 나타날 수도 있겠지.”

둘은 나무들 사이를 지나 호수 근처에 도착했다. 둘 다 말이 없었다.

“어제 바로 이 자리에 찰리가 앉아 있었어.” 사라가 마침내 소리쳤다. “찰리! 찰리!”

아무 대답이 없었다. 하지만 백조들이 갑자기 몸을 돌려 호수 저편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사라는 어깨가 축 늘어짐을 느꼈고 두 손을 뒷주머니에 집어넣었다.

“진짜 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분명해.” 사라가 말했다.

“아닐 수도 있잖아, 사라야.”

“아냐, 분명히 무슨 일이 생겼어. 가끔 안 좋은 일이 터질 때 직감이라는 게 있잖아. 안 좋은 일이 생길 때면 난 목에서 팔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거든.”

메리는 한 손을 사라의 팔에 얹었다. “어디 숨어 있을지도 몰라.”

“겐 숨는 것도 잘 못해. 숨바꼭질을 하고 있다면 찰리는 아마 숨자마자 고개를 내밀어 게임이 어떻게 돌아가나 둘러볼걸. 그럴 리 없어.”

“가게나 데어리 퀸(Dairy Queen)에 있을 지도 몰라. 약국까지 뛰어 가 볼게.”

“아냐, 분명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그 둘은 호숫가에 서있었다. 사라는 멍하니 백조들을 쳐다보고 있었다. 메리가 외쳤다. “찰리! 찰리!” 쓰고 있던 스카프가 풀려 내려오자 헤어 컬러들을 잘 감싸서 다시 묶었다. “찰리!”

“여기 있을 줄 알았는데.” 사라가 말했다. “바로 여기 앉아 있을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걱정도 안했는데. 이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집으로 돌아가자. 지금 집에 와 있을 지도 모르잖아.”

“그럴 리 없어.”

“눈으로 확인할 때까지는 낙담하지 말자.” 메리는 사라의 팔을 잡고 나무 사이를 걷기 시작했다. “네가 지금 누구처럼 행동하고 있는지 알아? 메리 루이스가 반장 선거에 나갔을 때 ‘반장이 안 될 거야, 될 리가 없어’라고 계속 말했던 거 기억해 봐. 삼일 동안 내내 메리 루이스는 그 말만 했잖아.”

“그리곤 선출이 안됐잖아.”

“지금, 네가 꼭 개 같애. 네 목소리랑 뭐 두루두루 다.” 메리는 서둘러 말했다. “자, 이제 가자.”



## 제 12장

사라가 메리와 함께 집으로 들어갔을 때 숙모는 아직도 전화통화를 하면서 앉아 있었다. 숙모가 전화에 대고 말하고 있었다.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 그리고는 통화를 중단하고 사라에게 물었다. “찾았니?” 사라는 머리를 흔들었고 숙모는 다시 통화를 했다. “미치, 이제 전화 끊고 경찰에 신고해야겠어. 사라가 방금 돌아왔는데 찰리가 호수에도 없었데.”

숙모는 전화를 끊고 비상 전화번호 카드를 들고 다이얼을 돌리기 시작했다.

좀 더 확실히 확인하고 나서 마지막에 경찰에 신고해야 할 것 같아서 사라가 말했다. “숙모, 아직 전화하지 마세요. 혹시—”

“전화할거야. 코끼리 백 마리가 와서 말려도 소용없어.”

“혹시 누구네 집에 가 있을지도 몰라요,” 메리가 말했다. “한 번은 제 동생도 후친스씨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는데 우린—”

“여보세요, 경찰서죠? 아이 실종 신고 하려고요.”

숙모는 사라를 올려다보면서 뭔가 말하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다시 전화 통화를 했다. “네, 아이 실종이요. 남자아이, 열살, 찰리 고드프레이예요. G-o-d-f-r-e-y.” 그리고는 잠깐 기다렸다. “1808 캐스가. 저는 윌라미나 고드프레이예요. 숙모예요. 제가 돌보고 있어요.” 잠깐 기다리다가 다시 말을 이었다. “예, 지난밤부터.” 그리고 다시 듣고 있었다. “아뇨, 몇 시였는지는 몰라요. 아침에 일어나보았더니 개가 없어졌어요. 그게 다예요.” 상대방의 말을 다시 듣고 있다가 대답할 때 숙모의 목소리는 걱정도 되고 화가 나서 점점 커지고 있었다. “아뇨, 개한테는 친구가 한 명도 없기 때문에 물어볼 수가 없어요. 세 살 때 머리를 다쳤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외출했다가 집에 돌아오고 싶으면 돌아오는 그런 열 살짜리 남자애가 아니에요. 집을 뛰쳐나가 가로등들을 부수고 차고 같은 데서 밤을 지새는 그런 애가 아니에요. 혹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건 아니죠?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 애는 집에서 세 블럭 떨어진 곳에서도 길을 잃어버려 무서워하고 말도 한 마디 못해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는 아이라고요. 이제 여기로 와 주실 건가요? 안 오실 건

가요?”

숙모는 잠시 기다리다가 말했다. “예, 예.” 그리고는 마지못해 “고맙습니다.” 라고 했다. 그리고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사라를 쳐다보았다. “이리로 온데.”

“뭐라고 그래요?”

“그냥 이리로 온데. 그게 다야.” 숙모는 불안해서 일어나 거실로 걸어갔다. “경찰들은 왜 이렇게 늦장을 부리지?”

“숙모, 방금 전에야 전화를 끊었잖아요.”

“나도 알아.” 숙모는 초조하게 손바닥을 치면서 현관문 쪽으로 갔다가 돌아왔다. “어딜 갔을까?”

“내 동생은 어렸을 때 특하면 길을 잃어버렸었는데.” 메리가 말했다.

“바로 이 집, 저 방에 있었어.” 숙모가 끼어들었다. 숙모는 맨 앞 침실을 가리켰다. “사라야, 내 평생 찰리를 돌보겠노라고 네 엄마랑 약속했다. 내가 숨을 쉬고 있는 한 찰리에게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약속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람. 이게 뭐야! 내가 그렇게 잘 돌보고 있는 애가 도대체 어디로 갔지?” 숙모는 허공으로 손을 내벌렸다.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 어딜 간 게지.”

“숙모, 항상 개만 쳐다보고 있을 수만은 없잖아요.”

“왜? 왜 그럴 수 없었지? 내 생활에서 찰리를 돌보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게 뭐지? 찰리보다 더 중요한 게 딱 하나 있긴 있네. 딱 한 가지-저 빌어먹을 텔레비전.”

“숙모-”

“그래, 저 빌어먹을 텔레비전. 어젯밤에 난 바로 저 의자에 앉아있었고 찰리가 단추 하나를 달아주라고 했는데 텔레비전 보느라 정신이 없었어. 육 년 전 네 엄마한테 ‘물론, 기꺼이 찰리를 돌보긴 하겠지만 텔레비전에서 재미있는 거 할 때만 빼고요. 남은 시간에만 찰리를 기꺼이 돌볼게요’ 라고 말할걸 그랬나 보다. 네 동생을 돌본다고 맹세했는데 약속을 지키지 못한 꼴이 됐으니 난 죽어도 싸다 싸.”

숙모는 다시 현관문 입구로 갔다. “얼마나 위험한 일들이 많은데. 계곡에 빠졌을지도 모르고 오래된 광산에서 길을 잃어버렸을 수도 있고 호수 바닥에 빠졌을 수도 있는데. 혹시 유괴되지는 않았을까?” 찰리에게 일어났을 수도 있는 비극적인 일들을 숙모가 줄줄이 나열하고 있을 때 사라와 메리는 조용히 서있었다.



사라가 말했다. “유괴되진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몸값을 치를 만한 돈이 없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게 꼭 그렇지만도 않아. 경찰들은 도대체 어디로 간 거야?”

사라는 텔레비전 옆에 있는 테이블을 내려다보았고 찰리가 편지지 위에 자신을 그려놓은 것을 보았다. 머리와 몸은 똑 같은 크기의 원이었고 눈과 귀는 좀 더 작은 원들을 겹쳐서 그려놓았다. 팔과 다리는 길게 잡아 늘린 풍선과 같았다. 그 그림 밑에 자기 이름을 써나가기 시작했지만 텐트를 치러 밖으로 나갈 때까지 두 글자 밖에 Tm지 못했다. 게다가 C는 거꾸로 씌어져 있었다.

이틀 전에 완다 언니가 찰리에게 편지지와 크레파스를 사주었고 갈색 크레파스로 이 그림 한 장을 완성한 것이었다. 그 그림을 보자 사라는 속이 좀 안 좋았다. 그 그림의 뭔가가 이를테면 그 왜소함이나 미완성 등이 영락없이 찰리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윌리 숙모가 말했다. “꼭 필요할 때면 경찰들은 백마일이나 떨어진 곳에서 범인들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곤 하지.”

“오는 중이라고 했잖아요.” 메리가 말했다.

“그래, 근데 어디 있냐고?”

할 말이 없자 메리는 눈을 깜박거리면서 스카프 안에 있는 헤어컬러를 정돈했다. “찰리가 백조를 보러 호수로 다시 갔을 거라는 생각이 내 머리에서 떠나질 않아.” 사라가 말했다.

“진짜 집에 돌아가기 싫어하더라. 나도 봤잖아.” 메리가 말했다.

윌리 숙모가 갑자기 방을 나갔다. 다시 방으로 돌아왔을 때 한 손에 찰리의 사진을 들고 오셨다. 삼월에 보이쉬와 함께 집 앞 계단 위에 앉아서 찍은 즉석사진이었다.

“경찰들은 항상 사진을 보여주라고 해.” 숙모가 말했다. 숙모가 사진을 내밀었고 사라와 메리는 그 사진을 볼 수 있었다. “후친슨 아주머니가 폴라로이드 카메라로 찍어준 거야.”

“정말 잘 나왔다,” 메리가 말했다.

사라는 아무 말도 없이 그 사진을 보았다. 하지만 사라에게는 크레파스로 좀 이상하게 그린 저 테이블 위의 미완성의 그림이 이 즉석사진보다 훨씬 찰리처럼 보였다.

“찰리 생일날이었어” 윌리 숙모는 슬픔에 잠겨 말했다. “완다가 사준

시계를 차고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는지 좀 봐. 사진에서 자그마한 팔을 쭉 펴고 있는 것을 보면 찰리가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는지 누구든 알 수 있어. 시간도 볼 줄 모르는 찰리에게 시계를 사준다고 완다에게 공연히 화를 냈었어. 시계를 차고 있는 것만으로도 찰리는 으쓱해했는데. 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찰리가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을 보기 위해 ‘찰리아, 몇 시니? 시계 끼고 있니?’ 라고 묻곤 했어.”

“그런데 남자 애들이 그걸 흠쳐갔잖아요. 세상에 그렇게 나쁜 짓은 또 없을 거예요.” 메리가 말했다.

“그 시계는 잃어버린 거야.” 숙모가 말했다. “그냥 잃어버린 거라고.”

“사기꾼 죠 멜비가 흠쳐간 거예요.” 사라가 버럭 소리를 쳤다.

“누가 나쁜 짓을 하면 내가 즉시 알아내는 거 알지. 지난 할로윈 때 후친슨씨 집 앞 베란다 의자들을 갖고 달아나는 남자 애들을 내가 잡았던 거 기억나지. 하지만 시계는 그냥 잃어버린 것이었고 죠 멜비가 우연히 시계를 발견하고는 착하게도 돌려 준거야.”

“흥!”

“흠친 게 아니었어.”

메리가 킬킬 웃으면서 말했다. “윌리 숙모, 사라가 죠에게 어떻게 했는지 말하던가요?”

“조용히 해, 메리.” 사라가 소리쳤다.

“어떻게 했는데?”

“‘배신자’라고 씌어진 작은 표지판을 만들어 학교 복도에서 죠의 등에 붙였는데, 죠는 그 사실도 모른 채 두 시간이나 돌아다녔잖아요.”

“그건 약과야. 누구든 내 동생을 건드리면 가만 두지 않을 거야. 그 배신자는 찰리의 시계를 흠치고는 겁이 나서 학교 버스 바닥에서 주웠다고 거짓말을 한 거라고.”

“복수하고 싶어 안달이 난 사람 같다.”

“복수당할 만한 짓을 했다면—”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복수는 하지만, 너처럼 계속 끈덕지게 욕하고 다니지는 않아. 그런 점에선 너 버트 아저씨를 닮았구나.”

“난 항상 아저씨를 닮고 싶어요.”

“아니, 버트 아저씨의 그런 점은 그다지 바람직한 게 아냐. 절대 양심을 버리지 않으셨어. 병원에서 다 죽어가면서도 누구한테는 절대 말도 걸

지 말고 누구하고는 절대 거래를 하지 말라고 당부하셨지. 아저씨의 유언에는 중고차 판매점에서 일하는 지프 존스씨에 대한 험담도 들어 있었어.”

“버트 아저씨답네요.”

“네가 호스로 물을 끼얹었던 키가 작고 친절한 그레첸 얀트씨에 대한 말도 들어 있었어. 그 때 그 아줌마는 동생이 대만에서 보내준 실크 드레스를 입고 있었지.”

“그 작고 친절한 그레첸 얀트씨는 실크 드레스에 물세레 받은 걸로 끝난 것을 다행으로 여겨야 해요.”

“사라!”

“글쎄, 그 작고 친절한 얀트씨가 무슨 짓을 한 줄 알아요? 제가 수도꼭지 옆 덩불에 서서 호스를 잠그고 있었는데 그 작고 친절한 얀트씨는 내가 있는 거는 모르고 울타리 앞에 있는 찰리 보고 말했어요. ‘바보야, 잘 지내니?’ 이것보다 훨씬 더 불쾌하게 말했어요. ‘바아아보요, 잘 지내냐?’ 이런 식으로요. 여태껏 나를 그렇게 화나게 만든 것은 없었어요. 입을 딱 하니 벌린 채, 물에 흠뻑 젖은 대만 실크 드레스를 입고 서 있던 그 작고 친절한 얀트씨의 모습은 진짜 볼만했어요.”

“경찰이 온다.” 메리가 재빨리 말했다. “근데 옆집에 멈춰 섰는데요.”

“여기라고 알려.” 숙모가 말했다.

메리가 문으로 가기도 전에 숙모는 메리를 지나 현관 앞 베란다로 나갔다. “여기예요. 이 집이에요.” 숙모는 얼굴을 돌려 어깨너머로 사라에게 말했다. 아이고, 하느님. 이제야 뭘 어떻게 해볼 수 있겠네.”

## 제 13장

사라는, 길이를 잘라낸 청바지와 완다가 해변에서 주워다준 옷으로 등에 ‘주교도소 재산’이라고 찍혀 있는 오래된 셔츠와 암갈색의 테니스화를 신고 거실에 앉아 있었다. 두 팔로 무릎을 감싼 채 등을 문에 기대고 통로 쪽에 앉아, 복도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 윌리 숙모의 목소리를 듣고 있었다.

“전화해도 소용없을 텐데,” 사라는 무릎에 대고 말했다. 사라의 무릎이 십여 차례나 다쳐 벗겨지지 않은 것은 이번 여름이 처음이었지만 그래도 지난 여름에 생겼던 하얀 흉터들이 보였다. 숙모가 대꾸도 하지 않았지만 사라는 다시 말했다, “소용없어요. 안 오실 거예요.”

“너 아버질 모르는구나.” 숙모가 말했다.

“제 말이 맞을 걸요.”

“내 생각은 달라. 찰리가 사라졌다는 소식을 들으면 아마도...” 숙모는 전화 다이얼을 돌리면서 말끝을 길게 늘였다.

아버지에 대한 생각을 하자 사라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낯선 사람에 대해서 갖게 되는 그런 감정이었다. 한 번은 마샬 영어 선생님이 사라를 학교에서 집까지 바래다준 적이 있었다. 근데 매일 보는 사이였는데도 사라는 집에 가는 내내 불편했었다. 바로 그 때 느꼈던 감정과 비슷했다.

찰리가 아프기 시작하면서 아버지와 의 거리감이 느껴졌던 것으로 기억한다. 가족사진 앨범에는 사라를 공중으로 던지면서 웃고 계시는 아버지, 사라를 목마 태워주시는 아버지의 모습, 양쪽 무릎에 완다와 사라를 앉히고는 현관 앞 계단에 앉아계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담은 사진들이 있었다. 찰리가 아프기 전까지는 이렇게 행복해하는 아버지와 그의 귀여운 딸들의 사진들이 있었다. 하지만 찰리가 아프고 난 후로는 행복해하는 모습이든 슬퍼하는 모습이든 사진 자체가 아예 없었다.

사라는 어린시절 사진을 보자 노후를 잠깐 동안 사라의 가족과 함께 생활하다가 사라져버린 검정 곱슬머리에 부러진 이를 갖고 있었던 한 재미있는 남자가 떠올랐다. 사진 앨범에 있는 이 재미있는 남자와, 오하이오주에서 일하면서 주말이면 때때로 서버지니아에 있는 집에 와서는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으로 야구나 축구를 보고 먼저 말을 거는 법이 없는 아버지와는 전혀 아무런 관계도 없었다.

사라는, 숙모가 교환원에게 지금 긴급 전화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하는 것을 듣고 있었다. “그래서 내가 직통 전화를 하지 않는 거라구요.” 숙모가 말했다. “너무 당황해서 전화번호를 잘못 누를까봐.”

“안 오실 거예요.” 사라가 무릎에 대고 속삭였다.

숙모는 교환원이 전화를 연결해주는 동안 기다리다가 사라에게 얼굴을 돌려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오실 거야. 두고 봐.”

사라는 일어서서 거실을 통해 부엌으로 들어갔다. 아침 먹은 그릇들이 아직도 테이블 위에 있었다. 딱딱하게 식은 오트밀 두 그릇을 내려다보다가 토스트 세 조각을 굽고 체리 주스 한 컵을 따랐다. 토스트를 먹으면서 밖으로 나갔는데 숙모는 아직도 기다리고 있었다.

“이 교환원이 긴급전화라고 말하지 않았나, 이상하네. 숙모는 초조하게 말했다.

“그럴 수도 있어요.”

“나 같으면 누가 긴급전화라고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해서 부리나케 달려가 전화를 받을 텐데. 사라, 아침에 뭘 먹는 거니?”

“점심이에요.”

“그 분말가루 주스와 토스트로는 오 분도 못 버터.” 숙모는 사라에게 하던 말을 갑자기 그만두고, 더 큰 목소리로 외쳤다. “쌘, 쌘 맞아?” 숙모는 사라에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전화기로 몸을 돌려 걱정스럽다는 듯 몸을 앞으로 숙였다. “먼저, 새미, 화 안낸다고 약속해. 아니, 먼저 약속해.”

“아빠는 화 안내요. 제가 장담해요.” 토스트를 하나 가득 입에 물고 사라가 말했다.

“쌘, 찰리가 없어졌어.” 숙모가 불쑥 말했다.

더 이상 대화를 들을 수 없게 되자, 사라는 토스트를 들고 현관 앞 베란다로 나갔다. 현관 앞 계단에 앉아 세 번째 계단에 찰리가 만들어놓은 두 개의 홈에 자신의 발을 집어넣었다. 그리고는 마지막 남은 토스트 한 조각을 먹고는 손가락에 묻은 버터를 핥아먹었다.

사라는, 마당 구석에 있는 느릅나무 밑에 찰리가 수저로 파놓은 구멍을 보았다. 어느 날 아침 내내 찰리가 그 구멍을 뚫고 지금은 보이쉬가 시원하게 그 안에 누워있다. 사라는 그 나무로 걸어가서 오래된 줄그네 위에

앉아 보이쉬 위를 왔다 갔다 했다. 그리고는 다리를 쪽 뺀어 보이쉬를 툭 건드렸다. 보이쉬가 머리를 들어 누가 자기를 찔는지 주위를 살피고는 그 구멍에 다시 누웠다.

“보이쉬, 나 여기 있어, 여기야, 보이쉬.”

그러나 보이쉬는 벌써 잠들어 있었다.

“보이쉬-” 그 순간 사라는 머리를 들어 윗리 숙모가 현관 앞 베란다로 나와 앞치마에 손을 닦으면서 잠시 동안 서 있는 것을 보았다. 찰리의 실종 사건 때문에 숙모는 가장 좋아하는 옷인 연두색의 꼭 끼는 셔츠를 입고 있었다. 그래서 너무 더워 숙모의 얼굴은 빨갱게 되어 번들거리고 있었다. 그리고 땀이 스며들도록 이마에는 손수건을 묶어두었다.

사라는 그네를 타고 더 높이 올라갔다. “숙모, 아빠 오신데요?” 사라가 물었다. 더 높이 올라가려고 발을 힘껏 차며 힘주던 것을 멈추었다. “아님, 안 오신데요?”

“오늘 밤 다시 전화하신데.”

“어려하시겠어요.” 사라가 말했다.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라.”

“안 오신다는 거잖아요.”

“이봐, 잘난 아가씨. 아버지가 지금 당장 여기 오실 필요는 하나도 없어. 지금 바로 운전을 하고 오신다 해도 어두워지기 전에는 집에 도착하기 힘들어. 그러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다고. 그래서 일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오시는 게 낫아.”

“아주 똑똑하시네요.” 사라는 일어서서 이번엔 진짜 그네를 타기 시작했다. 이 그네에 마지막으로 서 본 후로 키가 훨씬 더 자랐기 때문에 지금은 그네가 걸려 있는 나무 큰 가지에 머리가 거의 닿았다. 사라가 손으로 나뭇가지를 붙들고 발을 힘껏 차자 그네는 혼자 정신없이 이리저리 왔다 갔다 했다.

“어쨌든” 숙모가 말했다. “지금 그네 타고 놀 때가 아니다. 찰리가 없어졌는데 너는 그네타면서 재미있게 놀고 있으면 이웃집에서 뭐라고 생각하겠어?”

“아빠는 안 오실 거예요.”

“오실 거야,” 숙모는 더 큰 목소리로 말했다. “어두워질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야. 그게 더 현명한거지. 어두워질 무렵이면 어차피 찰리도 집으

로 돌아와 있을 수도 있고.”

“너무 현명해서 구역질이 다 나네요.”

“아버지한테 그렇게 버릇없는 소리 또 하면 그냥 안 둔다. 조심해.” 숙모가 말했다. “난 아버지를 잃는 기분이 어떤 것인지 알아. 잘 들어둬. 아버지가 너희들을 떠나고 나면 남는 것은 봉투 하나 밖에 없다는 것을 너도 알게 될 게다.”

사라는, 숙모가 지금 숙모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그의 옷 주머니에 있었던 모든 물건들을 넣어놓은 옷장 서랍 안 봉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시계, 잔돈 27센트, 접어져 있던 지폐들, 갈색 격자무늬의 손수건, 3센트짜리 우표, 두 개의 휘어진 파이프 소재기, 반 정도 남아 있는 박하사탕 등 그 안에 있는 모든 물건을 사라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래,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봐라. 그 때는 아버지에게 감사한 마음이 들 겠.”

“난 이미 아버지가 안 계신 걸요.”

“그렇게 말하지 말래도. 아버지는 혼자서 두 가족 모두의 부양을 책임 지셔야 했어. 할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새미는 고등학교도 졸업하기 전에 일을 해서 우리 가족의 부양을 책임져야 했어. 그리고 지금은 또 이 가족의 부양을 책임지고 계셔. 내 말은 그런 일들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지. 네가 두 가족을 부양해 보고나서 아버지에게 대해 험담을 하면, 네 말을 귀담아 들어주마.”

사라는 그네에서 땅으로 내려와 말했다. “나가보는 게 좋겠어요. 메리와 함께 찰리 찾으러 나가 볼게요.”

“어디로?”

“언덕위로요.”

“길 잃어버리지 않게 조심해라.” 숙모가 사라 뒤에서 소리쳤다.

후친슨씨 마당에 있던 아이들이 소리쳤다. “찰리 찾았어요, 사라누나?” 애들은 흙먼지 속에서 정원을 만들어 뿌리가 없는 꽃들을 조심스레 한 줄로 반듯하게 심고 있었다. 맨 앞줄에 심어 놓은 꽃들은 뜨거운 햇빛 아래서 이미 시들고 있었다.

“지금 찾으러 가는 거야.”

“사와?” 지금 세살이며 찰리랑 놀려고 종종 집에 오는 후친슨씨의 막내

아들이었다.

“왜?”

“사와?”

“왜 그러니?”

“사와?”

“왜?”

“사와, 나 풀 있어.” 마당에 좀 남아 있던 잡초들을 방금 뽑아 두 주먹 가득히 쥐고 있었다.

“그래 잘했어. 찰리 찾으면 말해줄게.”





## 제 14장

사라와 메리는 호수로 가서 숲을 향해 있는 집들 뒤로 가보기로 했었다. 사라의 야구경기가 진행되고 있는 공터를 지나 메리의 집으로 가고 있었다. 보도를 걸어 내려가면서 눈을 힐끗 올려 야구 경기를 바라보았다.

한 시간 동안 계속되어온 야구 경기는 아직도 양 팀이 영 대 영이었고 먼지를 뒤집어쓰고 지친 선수들은 아무 희망도 없이 묵묵히 경기를 하고 있었다.

그 공터를 거의 지났을 때 누군가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야, 찰리 찾았냐, 사라?”

쥘 멜비의 목소리임을 깨닫고, 사라는 뒤로 돌아보지도 않은 채 대답했다. “아니.”

“뭐라고?”

사라가 뒤로 돌아 그를 정면으로 보며 말했다. “찰리를 아직 못 찾았대니까 기빠서 펄쩍 뛰겠지.” 사라는 길을 따라 계속 걸어 내려갔다. 피가 머리에서 방망이질 치기 시작했다. 사라에게 쥘 멜비는 오늘 같은 날에는 장말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중 하나였던 것이다. 그에게는 사람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뭔가가 있었다. 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좀 이상하게 대화도 거의 나뉘 본 적이 없지만 개가 너무 싫어서 보기만 해도 속이 메스꺼워 질 정도였다.

“뭐 도와줄 게 없을까?”

“없어.”

“만약 찰리가 숲 속에 있다면 같이 찾아봐 줄게. 난 누구보다 이 언덕에 대해선 잘 알아.” 쥘은 경기를 그만두고 주머니에 손을 찌른 채 사라 뒤에서 걷기 시작했다.

“고맙지만 됐어.”

“도와주고 싶어.”

사라는 빙빙 돌다가 쥘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사라의 두 눈은 이글이글 타고 있었다. 네 도움 필요하지 않아. 둘은 서로를 쳐다보고 있었다. 사라의 속에서 뭔가 꼬이는 것을 느꼈고 갑자기 메스꺼워졌다. 앞으로 살아 있는 동안에는 체리 분말주스를 다시는 마실 수 없을 것 같았다.

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모래를 차면서 보도 위에서 한 쪽 발을 앞뒤로 움직이고 있었다. “저기—”

“내 동생 시계를 훔쳐간 녀석이 필요치도 않다는 도움을 주시겠다고.” 사라는 쥬의 말에 끼어들며 말했고, 드디어 그의 면전에다 대고 이런 비난을 하게 돼 속이 후련했다. 그러나 머리의 피가 너무 크게 벌떡벌떡 뛰어서 자기가 뭐라고 했는지도 알 수가 없었다. 시계 도난 사건 이 후로 몇 달 동안 이 순간을 기다려 왔고 뭐라고 말할 지도 다 준비해 두었다. 그러나 방금 그 준비해둔 말을 속 시원히 쏟아 부었지만, 그녀가 상상해왔던 쾌감은 느낄 수가 없었다.

“그래서 네가 나를 그런 식으로 대했던 거구나. 쥬는 사라를 보았다. “내가 네 동생의 시계를 훔쳤다고 생각해?”

“네가 그랬다는 거 알아.”

“어떻게?”

“찰리에게 누가 시계를 훔쳐갔는지 계속 물어봤어. 어느 날 학교버스에서 다시 물었는데 찰리가 너를 똑바로 가리켰어.”

“착각했겠지—”

“찰리는 착각하거나 그러지 않아. 말을 못하니까 너에 대해서도 말을 못할 거라고 생각했겠지만 찰리는 똑바로 가리켰어.”

“착각한 거야. 난 찰리에게 시계를 돌려주었지 훔치지 않았어.”

“믿을 수 없어.”

“그럼 네 마음대로 생각해. 하지만 난 그 시계를 훔치지 않았고, 그 문제는 해결된 걸로 알고 있었어.”

“흥!”

사라는 몸을 돌려 아주 빠르게 언덕을 내려갔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인지 쥬 벨비에 대해 전과 같은 확신이 서지 않았고 머리 속은 더욱 혼란스러울 뿐이었다. ‘재가 틀림없이 시계를 훔쳤어.’ 사라는 혼자 중얼거렸다. 이 문제에 대해 자신이 오해를 하여 괜한 사람에게 복수를 했다는 생각은 하기조차 싫었다.

누군가 흙터를 치자 뒤에서 갑자기 환성이 울려 퍼졌다. 공이 길 위로 떨어졌다. 쥬가 뛰어가서 공을 집어 경기장에 있는 한 남자아이에게 던져 주었다. 사라는 돌아보지 않았다.

“야, 기다려, 같이 가자.” 사라는 쥬가 외치는 소리를 들었다.

사라는 돌아보지 않았다. 전에 곤경에 처해졌던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언젠가 길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뒤에서 차가 오는 소리를 들었고 땀뿡거리는 소리도 들었었다. 그리고 한 남자아가 “어이, 귀여운 아가씨!” 라고 소리치는 것을 들었다. 그래서 뒤로 돌아보았다. 그리고 남자 아이들이 환호성을 쳤던 아가씨는 자기가 아니라 길 건너편에 있던 로지 캄튼이었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미 돌아본 뒤였다. 바텔레 지역 박람회 아가씨이자 메밀아가씨이며 다른 많은 아가씨 선발대회 입상자인 로지 캄튼을 부르고 있었던 것이다. 누가 자신을 보고 있었는지 아닌지는 몰랐지만 사라는 재빨리 머리를 숙였고 얼굴은 활활 타올라 영원히 붉은 색으로 남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었다. 그래서 지금 사라는 머리를 숙인 채 계속 빨리 걸어가고 있다.

“기다려, 사라.”

사라는 여전히 돌아보지 않았고 들은 내색도 하지 않았다.

“기다려.” 쥘은 뛰어가서 사라는 따라잡고 사라 옆에서 걷기 시작했다. “남자 애들이 모두 도와주고 싶어 해.”

사라는 망설여졌지만 계속 걸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았다. 사라는 서커스 단원들이 장대 위에서 걸어갈 때의 느낌을 알 것 같았다. 왜냐하면 자신의 두 다리가 지금 그와 같이 어디에도 갈 수 없는 아주 과장된 발걸음으로 위태롭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사라는 금방이라도 울음이 터질 것 같아 다급하게 말했다. “아, 알았어.” 그리고는 갑작스럽게 뜨거운 눈물이 눈에 고였다. 그리고 사라는 자신의 두발을 내려다보았다.

쥘이 말했다. “어디서부터 둘러볼까? 좋은 생각이 있어?”

“찰리가 저 위 숲 속에 있을 것 같아. 어제 찰리를 데리고 백조 보러 갔었거든. 백조를 찾다가 길을 잃어버린 것 같애.”

“저 쪽 위에 있을 수 있겠네.”

사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쥘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말했다. “찾을 수 있을 거야.”

사라는 대답이 없었다. 눈물이 두 볼을 따라 흘러내려 대답을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사라는 재빨리 걸음을 돌려 메리의 집 쪽으로 혼자 걸어갔다. 그리고 메리가 올 때까지 보도 위에서 기다렸다.

## 제 15장

사라와 메리는 횡한 들판을 가로질러 거의 다 지날 때까지 말이 없었다. 마침내 사라가 말문을 열었다. “방금 누가 나를 불러 세워 찰리에 대해 염려하는 소리를 했는지 알아 맞춰봐.”

“모르겠는데, 누구야?”

“쥔 멜비.”

“정말? 개가 뭐라고 했는데?”

“찰리 찾는 것을 도와주고 싶대. 토하는 줄 알았어.”

“도와주고 싶다니 착한 거 아니니?”

“글쎄, 만약 개가 네 동생 시계를 훔쳤었다면 생각이 달라질 걸.”

메리는 잠깐 동안 말이 없었다. 그러다가 말했다. “이건 말하면 안 되는 건데, 쥔은 그 시계 훔치지 않았어.”

“듣기 싫어!”

“아니야, 진짜 훔치지 않았어.”

사라는 메리를 보면서 말했다. “네가 어떻게 알아?”

“말하지 않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는 말할 수 없어. 하지만 쥔이 훔치지 않았다는 건 알아.”

“어떻게?”

“말할 수 없어. 약속했거든.”

“언제부터 그렇게 약속을 잘 지켰어? 자, 메리 위섹. 이제 아는 거 다 말해봐.”

“안돼.”

“메리, 말해.”

“내가 말한 줄 알면 엄마가 날 죽이려 들 거야.”

“엄마가 모르시게 하면 돼.”

“음, 네 숙모가 쥔의 엄마를 만나러 가셨어.”

“뭐?”

“윌리 숙모가 쥔의 엄마를 만나러 가셨어.”

“설마!”

“맞아, 만나러 가셨어. 우리 엄마가 그때 거기에 계셨거든. 찰리가 시계

를 되찾은 지 두주 후 쫓 이었을 거야.”

“못 믿겠어.”

“어쨌든, 사실이야. 네가 숙모에게 죠가 시계를 훔쳤다고 말했지. 사실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말했잖아. 그래서 윌리 숙모가 죠의 엄마를 만나러 가신 거야.”

“설마, 숙모가 그랬을 리가 없어.”

“그러셨어.”

“죠의 엄마가 뭐라고 하셨어?”

“죠를 방으로 부르고는 말씀하셨대. ‘죠, 네가 찰리의 시계를 훔쳤니?’ 죠는 ‘아뇨’라고 대답했고.”

“그럼 엄마 앞에서 개가 뭐라고 할 수 있겠니? ‘예, 내가 그 시계를 훔쳤어요.’ 라고 말할까? 쳇! 그건 아무 증거도 못돼.”

“그러자 죠의 엄마가 말했어. ‘사실을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누가 시계를 갖고 갔는지 아니?’ 그러자 죠가 아무도 시계를 훔치지 않았다고 대답했대.”

“그럼 일주일 동안 그 시계가 대체 어디로 사라졌었다는 거야?”

“이제 말하려고 하잖아. 친구들 중 몇 명이 약국 앞 밖에 있었고 찰리는 학교 버스를 기다리면서 거기 서 있었다고 죠가 말했어. 너는 약국 안에 있었는데. 바로 그날 우린 답장도 하지 않는 펜팔 친구들에게 편지를 쓰려고 우표 사고 있었던 거 기억나지? 왜, 우표가 기계에서 안나왔었잖아? 어쨌든, 약국밖에 있던 남자아이들이 사탕을 갖고 찰리를 놀려댔고 찰리는 그 사탕을 가지려고 애를 썼데. 그 애들 중 한 명이 찰리 모르게 시계를 빼앗았어. 찰리에게 몇 시인지 물어보면 시계가 없어진 것을 안 찰리가 당황해하는 모습을 보려고 그랬데. 그러니까 그냥 놀리려고 그랬던 거래.”

“나쁜 놈들!”

“바로 그때, 네가 약국에서 나와 그 애들이 사탕을 갖고 놀려대는 걸 보았고 꺼지라고 말했던 거야. 그리고 학교 버스가 와서 너는 서둘러 찰리를 버스에 태웠고 그 남자 애들은 그 시계를 돌려주기가 두려워진 거였어. 그렇게 된 일이었어. 죠는 그 시계를 전혀 훔치지 않았을 뿐더러 그 자리에도 없었어. 죠는 네가 찰리를 버스에 태워 보냈을 때야 거기에 나타났고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조차 모르고 있었어. 나중에 거기서 죠가

시계를 발견하고는 주워서 찰리에게 돌려준 거야. 그게 다야.”

“왜 이런 사실을 미리 말하지 않았니?”

“나도 그 사실을 오늘 점심때야 알았으니까. 녀 달 전에 엄마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까맣게 잊어버려 지금까지 말씀을 안하신거래.”

“오늘은 어떻게 생각나신 거래?”

“엄마는 항상 그런 식이야. 저녁식사 때 찰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일이 생각나신 거래. 전에는 나에 대해 호머 교장선생님과 오랜 시간 상담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걸 나중에야 우연히 생각나서 말한 적도 있었어. 호머 교장선생님과 상담한 걸 말이야! 글썄, 학교에 찾아가서 오랜 시간 동안 상담을 하고서도 일 년 동안이나 아무 말씀도 안하셨던 거야.”

“숙모가 여태껏 하신 일 중 가장 잘못하신 일이야.”

“아는 내색 하지 마. 안 그럼 나 큰일 나.”

“알았어. 하지만 솔직히, 진짜—”

“약속했지?”

“알아. 자꾸 말하지 않아도 돼. 하지만 진짜 끔찍하다.” 사라는 고개를 앞으로 숙이고 걸었다. “끔찍해! 죠를 만났을 때 내가 방금 무슨 것을 한 줄 아니?”

“어떻게 했는데?”

“시계를 훔쳤다고 막 욕했어.”

“설마, 사라야.”

“했어. 나도 어쩔 수가 없었어. 누군가 찰리에게 나쁜 짓을 했다고 생각하면 용서가 안된단 말이야. 윌리 숙모가 말한 것처럼 계속 쫓아 다니면서 욕하고 싶어져. 심지어 죠 벨비가 진짜로 그 시계를 가져가지 않았다는 것도 의심했어. 그리고 지금도 계속—”

“쉬! 잠깐 조용해 봐.” 메리는 트랜지스터 라디오를 들고 있었고 그것을 둘 사이로 들어올렸다. “들어봐.”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캐스 지역에서 열 살짜리 찰리 고드프레이가 실종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밤에 집에서 사라졌으며 파란색 파자마를 입고 있고 갈색 슬리퍼를 신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쪽 팔에는 시계를 끼고 있고 다른 쪽 팔에는 이름과 주소가 붙어 있는 팔찌를 끼고 있다고 합니다. 정신지체아로서 말을 못 하고 낯선 사람이 다가가면

경계심을 갖는다고 합니다. 이 아이를 발견하시는 분은 즉시 경찰서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은 서로를 쳐다보다가 묵묵히 그 들판을 가로질러 계속 걸어갔다.



## 제16장

메리와 사라는 숲 근처 들판 위에 있었다. 한 시간 동안 찰리를 찾아다녔지만 흔적도 찾을 수 없었다.

메리가 말했다. “내가 어떻게 보이든 상관 안 해. 이 스카프 벗을래. 여기는 100도는 족히 되는 것 같아.”

“찰리!” 이따금씩 불렀던 것처럼 사라가 외쳤다. 사라의 목소리는 긴장하기 시작했고 더욱 자주 찰리를 불렀다. “찰리!”

“사라, 너 우리가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 알아?” 메리가 잠시 후 물었다.

“물론. 호수는 저 밑에 있고 오래된 오두막집은 바로 저쪽에 있어. 조금만 더 높이 올라가면 다 보일거야.”

“조금만 더 올라가면,” 메리가 지친 목소리로 따라 말했다.

“너까지 따라올 필요는 없었는데.”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거야. 그냥 길을 잃지는 않았는지 걱정이 돼서 그랬어. 오늘 저녁에 베니 호프만이 초대할 파티에 가야 되거든.”

“알아. 벌써 몇 번이나 말했잖아.”

“그래서 길을 잃고 싶지 않은 거야.” 메리는 아무 말도 없이 몇 발자국을 걸었다. “지금도 내가 왜 초대되었는지 모르겠어. 베니 호프만은 나에게 대해 거의 모르거든. 나도 개를 올 여름 수영장에서 두 번 밖에 본적이 없어. 그런데 왜 개가 나를—”

“그만해. 가자.”

“찰리가 어느 쪽으로 갔는지도 잘 모르면서 계속 가는 건 소용이 없는 것 같아. 숙모는 찰리가 오래된 탄광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던데.”

“알아, 안 좋은 일 하면 광산을 떠올리시기 때문에 숙모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야. 숙모의 삼촌과 오빠가 그 탄광에서 돌아가셨거든. 하지만 찰리는 거기 안 들어갔어. 브리안트씨가 이사 간 후에 그 집 지하실에 들어갔을 때 찰리는 춥고 어둡고 무서워서 거기에 들어가지조차 하지 않았던 거 기억하지?”

“그래. 그 때 난 창문에서 뛰어내리다가 발목을 삐었는데 너는 오래된



잡지 ‘라이프’를 살살이 읽고 있었지. 그래서 난 거기서 두 시간 동안이나 기다렸잖아. 그래서 기억나는 거야.”

“그 때 잡지보고 있었던 거 아니야.”

“다 들었어. 나는 쥐들과 함께 킁킁한 지하실 밑에 있었고 너는 위층에 있었어. 도와달라고 소리쳤지만 너는 ‘지금 도움을 청하러 갈게’라고 말만 계속 했어. 그리고 나는 계속 페이지가 걷히는 소리만 들었어.”

“어쨌든, 너를 구해주었잖아. 그렇지?”

“그렇긴 하지.”

사라는 다시 멈춰 섰다. “찰리! 찰리!” 들은 길게 자란 풀밭에서 대답을 기다렸다. 그리고 다시 걷기 시작했다. 메리가 말했다. “찰리를 찾아 나서기 전에 다른 사람들을 기다릴걸 그랬나봐. 정식으로 조직된 수색대와 함께 모두 다 같이 수색을 할 텐데. 헬리콥터가 있을 수도 있고.”

“오래 기다릴수록 찰리를 찾는 건 더 힘들어져.”

“글쎄, 나는 늦지 않게 집에 가서 목욕하고 머리도 손질해야 하는데.”

“알아, 안다고. 너 베니 호프만 파티에 가야 한다는 거.”

“그거 가지고 그렇게 화낼 필요 없잖아. 내가 초대해 달라고 부탁한 것도 아니고.”

“네가 초대돼서 화난 게 아니야. 난 지금 파티에 신경 쓸 여유 없어. 단지 지금은 네가 찰리 찾는 일에 도움이 되는 것 같지 않아서 화난 것뿐이야.”

“내가 그렇게 방해가 된다면 집에 가지 뭐.”

“그게 낡겠어.”

들은 아무 말도 않고 서로를 쳐다보았다. 그 둘 사이에 있던 라디오가 다시 안내 방송을 시작했다. “카스 지역에서 찰리 어린이를 찾기 위해 자원봉사자들이 필요합니다. 이 어린이는 지난 밤 중에 집에서 사라졌습니다. ‘치트 숲(Cheat Wood)’에서 수색 작업이 오늘 오후 세시 정각에 시작될 것입니다.”

메리가 말했다. “아, 나도 계속 찾을게. 더 빨리 걷도록 해볼게.”

사라는 어깨를 으쓱하고 나서 몸을 돌려 언덕위로 걸어가기 시작했고 메리가 뒤를 따랐다. 한때는 숲과 목장의 경계였던 오래된 울타리에 다다랐다. 사라는 그 울타리 옆을 천천히 걸었다. “찰리!” 사라가 외쳤다.

“네 목소리를 들으면 찰리가 이리로 올까? 그렇게 생각해?”

사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백 여 명의 사람들이 숲 속으로 발을 쿵쿵거리면서 와 큰 소리로 외쳐대면 찰리는 너무 무서워서 오지 않을 거야. 내가 찰리를 잘 알아.”

“난 네가 찰리가 이 쪽으로 왔다고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는지 모르겠어.”

“그냥 알아. 찰리를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뭔가가 내 안에 있어. 찰리가 뭔가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을 알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야. 이따금 길을 따라 걸어 내려가다 보석 가게를 지나치면서도 생각해. 찰리가 여기 있었더라면 바로 저기에 서서 오후 내내 저 시계들을 보고 서 있을 거라고 말이야. 그리고 찰리가 어느 지점에 서서 어떻게 유리창에 손을 대고 얼굴 표정이 어떨지도 다 알 수 있어. 그리고 어제 나는 찰리가 백조를 너무 좋아해 그 자리를 떠나고 싶어 하지 않을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 나는 찰리가 뭘 느끼는지 다 알 수 있어.”

“그냥 그렇다고 믿는 거 아냐?”

“아니, 알아. 어느 날 밤 나는 하늘에 대해 생각하면서 별들을 올려다 보고 있었어. 그리고 하늘이 어떻게 계속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았어. 아주 오랫동안 생각해 보았지만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 그랬더니 결국 구역질 같은 것이 나더라고. 바로 그때 생각했어. 바로 이런 식으로 찰리는 뭔가에 대해 느끼는구나. 오랫동안 글자를 인쇄체로 쓰려고 하다가 결국 찰리는 속이 메스꺼워진다는 걸 알지?”

“잠깐, 누가 오고 있어.” 메리가 끼어들었다.

“어디?”

“나무들 사이에 있어, 우리 쪽으로 오고 있어. 죠 펠비.”

“거짓말이지. 너 나 놀리려고-”

“맞아. 보라고.” 메리는 재빨리 자신의 헤어컬러위로 스카프를 다시 싸매기 시작했다. “그럼 너 내가 안경이 필요하다는 거야.”

“들판을 가로질러가자. 빨리!” 사라가 말했다. “아니야, 잠깐, 울타리 밑으로 가자. 움직여 메리, 제발, 그 스카프 좀 던져버려. 울타리 밑으로 가자. 개 지금 만나고 싶지 않단 말이야. 얼른.”

“울타리 밑으로는 안 가. 어쨌든 지금은 자연스럽게 그냥 걸어가는 것이 뛰어가는 것보다 더 나아.”

“내가 한 짓이 있는데 자연스럽게 걸어갈 수는 없어.”

“언젠가는 맞닥뜨려야 할 일이고, 모든 사람이 찰리 일로 마음이 아픈 바로 지금이 적기일 수 있어.” 메리가 외쳤다. “안녕, 죠, 뭐 좋은 소식 있어?”

죈가 그들에게 와서 갈색 펠트 슬리퍼를 내밀면서 사라를 보았다. “이거 찰리 거야?”

사라는 그 낫익은 물건을 보았고 잠시 동안 시계 사건은 잊어버렸다. “어디서 찾았니?”

“바로 저기 위 울타리 옆에서. 보이길래 그냥 집어왔어.”

사라는 슬리퍼를 받아 자기 앞에 들고서 말했다. “역시, 찰리가 이 쪽으로 왔을 줄 알았지만 이제 확증이 생겨 더 안심이야.”

“방금 전에 에이커 아저씨랑 얘기하고 있었거든.” 죈가 계속 말했다. “어제 저녁 여기서 아저씨네 개들이 막 짖는 소리를 들으셨대. 그래서 오두막집 옆에다 개들을 묶어두었고 아저씨 생각에는 누군가 여기를 배회하고 있었던 것 같대.”

“아마도 찰리였을 거야.” 메리가 말했다.

“맞아, 누가 주유소로 내려가서 이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달해야 돼. 지금 큰 수색 작업을 조직해서 그 중 반은 광산으로 가 보려고 계획 중일 거야.”

잠시 조용하더니 메리가 말했다. “내가 갈게. 여기로 다시 돌아 올 시간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메리는 죈를 쳐다보았다. “베니 호프만에게 파티에 간다고 약속했거든. 그래서 지금 머리에 물을 맡고 있는 거야.”

“그러면 네가 가서 내가 에이커씨 집 뒤에서 언덕으로 얼마일 정도 올라간 지점에 있는 오래된 울타리 근처에서 이 슬리퍼를 주웠다고 사람들에게 말해.” 죈가 말했다.

“알았어. 너도 오늘 저녁 파티에 올 거니?”

“아마도.”

“와, 재미있을 거야.”

사라는 목을 가다듬고 말했다. “미안하지만 나는 찰리를 계속 찾아보아야겠어.” 사라는 몸을 돌려 다시 언덕을 오르기 시작했다. 풀밭에서 매미 소리조차 나지 않아 오랫동안 침묵이 흐른 것 같았다. 사라는 테니스화로 길게 자란 잡초들을 걷어찼고 찰리의 슬리퍼를 꼭 껴안았다.

“잠깐, 사라, 같이 가자.” 죈가 말했다.

쥬는 사라와 합류했고 사라는 여전히 슬리퍼를 내려다보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그 슬리퍼 위에는 인디언 추장의 사진이 찍혀 있었다. 펠트위에 대충 찍혀있었지만 그 인디언의 옆모습에는 전에는 느끼지 못 했던 외로움이 배어있었다.

사라는 다시 목을 가다듬었다. “한 가지 말하고 싶은 게 있는데.” 사라의 목소리가 평소와는 달랐다. 테이프에 녹음된 목소리 같았다.

쥬는 잠시 기다리다가 말했다. “계속 해.”

사라는 잠시 동안 말은 중단했지만 잡초들 사이로 소란스럽게 계속 걸어가고 있었다.

“말해.”

“잠깐만 기다려줘. 이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보게.” 사라가 하고 싶은 ‘미안해’ 라는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질 않았다.

둘은 묵묵히 계속 걸었고, 잠시 후 쥬가 말했다. “나는 28년 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은 인도의 한 종교스승에 대한 글을 읽었어. 28년 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았대. 모든 사람들이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을 때 어떤 말을 할지 듣기 위해 그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려왔어. 굉장한 말을 할 거라고 기대했기 때문이지. 거기에 앉아있는 그 불쌍한 사람에 대해 생각해 보았어. 가장 시시해질 수도 있는 뭔가를 말 하려고 28년 동안이나 노력해왔지만 아무것도 생각 해 낼 수 없고 지금은 너무도 절망적일 그 사람 말이야. 그리고는 또 매일 매일 상황은 더 나빠지고 있는 거지.”

“그 이야기 안에 뭔가 뼈를 담고 있는 거니?”

“아마도.”

사라가 웃었다. “그냥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어.” 그리고는 다시 울음을 터뜨릴 것만 같았고 혼자 중얼거렸다. 너는 크고 호물거리는 달팽이에 불과해. 달팽이!

“괜찮아.”

“윌리 속모가 네 엄마를 찾아갔다는 사실을 방금이야 알았어.”

쥬는 어깨를 으쓱했다. “별 뜻은 없으셨을 거야.”

“하지만 너무 하셨어.”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았어. 내가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 비난을 받으니까, 따분한 일상에서 심심치 않고 괜찮았어”

“하지만 속모와 메리의 엄마 앞에서 그렇게 불려 들여지는 건. 아니야,

너무한 일이야.” 사라는 방향을 바꿔 숲 속으로 들어갔다.

“신경 쓰지 마. 난 강해. 절대 쓰러지지 않아. ‘거리 위 질주자’ 에 나오는 코요테 같이 항상 납작해지고 폭파돼도 다음 장면에서는 다시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와 한가롭게 거닐고 있는 코요테 같다고.”

“내가 너무 경솔하게 행동했어. 큰 실수를 했어.”

“나도 그럴 때 있어.”

“나 같은 실수는 아닐 거야.”

“아마도 더 큰 실수일걸. 너 문법과목 성적표를 받았던 때 기억하지? 성적표 한 쪽에는 점수가 나와 있고 다른 쪽에는 선생님이 체크를 하는 인성 항목들이 있었잖아. 이를테면 ‘비판을 건설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같은 것들.”

사라가 웃었다. “난 꼭 그 항목에 체크되어 있었는데.” 사라가 말했다.

“체크 안 된 학생이 있었겠어? 그리고 이런 항목도 있었잖아. ‘성급하고 다른 사람을 고려하지 않고 행동한다.’ 같은 것들. 그리고 어느 해에는 그 항목에 체크를 두 개나 받았었어.”

“실마.”

“그랬었어. 2학년 때 맥레오드 선생님. 그 선생님이 반 전체 학생들에게 자기가 학생에게 더블 체크를 주는 것은 올해가 처음이라고 말씀하셨던 거 기억나. 그래서 그 교실 안에 있던 모든 학생들은 자기가 더블 체크를 받았을까봐 성적표를 열어보는 것이 두려웠지. 내 성적표를 펴보니 바로 거기 ‘성급하게 행동한다’와 ‘비판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두개의 항목에 더블 체크가 돼있었고 다른 모든 항목에 체크가 하나씩 돼있었어.”

“실망했었니?”

“당연하지.”

“네가 아주 강하고 절대 쓰러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렇긴 해.” 잠시 후 조는 “내 생각에는” 하면서 왼쪽을 가리켰다. “이쪽으로 올라가보자.”

사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고 조 앞에서 나무들 사이를 걸어 나갔다.

## 제 17장

숲 속에 땅 속 깊이 움푹 파여 있는 계곡이 하나 있었고 찰리는 이른 아침 안개를 헤치고 계곡 쪽으로 갔다. 우연히 두 팔을 뻗은 채 무작정 안개를 헤치고 걸어가다가 겨우 계곡으로 닿는 길 하나를 찾았다. 해가 뜨자 안개는 갠지만 나가는 길을 찾을 수가 없었다.

높은 암반들, 수많은 잡초와 가시덤불들, 나무들. 해가 뜨자 그 계곡에 모든 것들이 똑같아 보였다. 산비탈에서 쓸려 내려온 흙먼지로 만들어진 좁은 길을 따라 잠시 배회하다가 마침내는 통나무 위에 앉아 멍하게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잠시 후 기운을 좀 차려 눈물과 흙먼지가 함께 말라 붙어있는 볼에다 손을 문지르고 부어오른 눈꺼풀도 문질렀다. 그리고 밑을 내려다보았고 맨발 한 쪽을 보았다. 그리고 맨발을 슬리퍼 위에 올려놓고 두 발을 포개고 앉았다.

지금 찰리는 좀 우울했다. 많은 상처를 입고 무서운 소리도 많이 들었고 많은 환영으로 가슴이 철렁했었다. 그리고 너무 많이 다쳐 모든 감각이 무더져 완전히 절망에 빠져버렸다. 여기에 영원히 앉아 있을 것 같았다.

찰리가 길을 잃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만 이런 지경에 처해본 적은 없었다. 마을 박람회에서 한번 율리 속도를 잃어버렸고 속도가 “찰리, 찰리.”를 외치면서 군중 속에서 불쑥 튀겨 나와 자기를 감싸 안았을 때야 비로소 자신이 길을 잃어버렸었다는 것을 깨달았었다. 또 한번은 학교 복도에서 길을 잃어버려 교실로 돌아가는 길을 찾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복도를 오르락내리락 했고 문 밖으로 내다보는 낯선 애들 때문에 당황했었다. 그 애들 중 한명이 나와 찰리를 교실까지 데려다 주었다. 하지만 여태까지 그의 생애 중 지금과 같은 경험을 한 적은 없었다.

찰리는 몸을 구부려 시계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눈은 작고 빨간 시계바늘을 보고 있었다. 처음으로 그 작은 시계바늘이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것을 깨달았다. 걱정이 되어 숨을 죽이고 시계를 얼굴 가까이로 가져갔다. 시계바늘이 움직이지 않았다. 잠시 동안 그는 믿을 수가 없었다. 시계를 유심히 보면서 기다렸다. 여전히 시계바늘이 움직이지 않았다. 찰리는

손목에서 시계를 떨어내려고 하는 것처럼 자기 손을 앞뒤로 흔들었다. 사라 누나가 이런 식으로 누나 시계를 흔드는 것을 본 적이 있었다.

그리고 나서 시계를 귀에 갖다대었다. 조용했다. 이 시계를 다섯 달 동안 꺼 왔지만 한 번도 고장 난 적이 없었다. 이렇게 고장 날 수도 있다는 것조차 몰랐었다. 지금 시계는 조용하고 정지해 있었다.

찰리는 다른 한 손을 시계 위에 올려놓고 시계를 완전히 감쌌다. 그리고 기다렸다. 숨이 다시 가빠지기 시작했다. 시계 위에 올려놓은 손은 거의 축축해졌다. 좀 더 기다리다가 천천히 그리고 조심해서 손을 내려놓고 다이얼 위에 있는 작고 빨간 시계바늘을 보았다. 움직이지 않았다. 그 방법이 통하지 않았다.

시계 위로 몸을 구부려 태엽을 유심히 보았다. 윌리 속모는 아침 식사 후 매일 시계태엽을 감아주었다. 하지만 찰리는 속모가 그것을 어떻게 했는지 몰랐다. 손가락으로 태엽을 잡고 서투르게 그리고 세게 잡아당겨 빼냈다. 태엽을 쳐다보다 도로 시계에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그만 땅위로 떨어져 나뭇잎들 사이로 사라져버렸다.

다람쥐가 찰리 앞으로 뛰어가더니 비탈을 쏘살같이 올라갔다. 잠시 관심이 딴 데로 쏠린 찰리는 일어나서 그쪽으로 걸어갔다. 다람쥐는 잠깐 멈칫하더니 구멍 속으로 황급히 달려 들어갔다. 찰리만 어둠 속에 혼자 남아 다람쥐가 어디로 사라졌는지 살폈다. 비탈 쪽으로 더 가까이 가서 나뭇잎들을 들춰보았지만 뿌리들 사이에서 다람쥐가 사라진 구멍을 찾을 수가 없었다.

갑자기 찰리 가슴 속에서 뭔가가 폭발하는가 싶더니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다. 다람쥐도 사라지고 시계도 고장이 나서 비탈 위에 자신의 몸을 내던지고는 발로 땅을 차고 연신 두드리기 시작했다. 자신의 무력함으로 고통스럽게 울부짖었다. 귀가 터질 듯이 계속되는 고함소리는 마치 공중에 걸려 서로 겹쳐지는 듯 했다. 마치 동물처럼 어둠 속에서 손가락으로 나무뿌리를 뜯어내고 나뭇잎 밑을 파고 땅바닥을 긁어댔다.

몸이 축 처져 비탈에서 굴러 떨어지더니 잠잠했다. 나무들을 올려다보았고 가슴은 아직도 흐느낌으로 벌떡거리고 있었다. 이상하게 얼굴이 고요해졌다. 잠시 후, 눈꺼풀이 처지더니 잠이 들었다.

## 제 18장

“찰리! 찰리!”

돌아오는 것은 머리 위 나뭇가지에서 지저귀는 새 소리 뿐이었다. 길고 떨리는 소리였다.

“우리 소리가 안 들리는 곳에 있어,” 사라가 말했다.

한 시간 동안 사라와 조는 멈추지 않고 숲 속 깊은 곳으로 들어갔고 지금은 나무들이 너무 뻥뻥하게 들어서 있어 엷은 빛줄기만이 무성한 잎 사이로 그들의 길을 안내해주었다.

“찰리! 찰리!”

사라는 땅을 내려다보면서 기다렸다.

조가 말했다. “잠깐 쉴래?”

사라는 머리를 흔들었다. 갑자기 동생이 너무 보고 싶어 목이 메었다. 이것은 홍역에 걸렸을 때 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어 아무것도 삼킬 수 없었던 때처럼 자신이 뭔가를 간절히 바랄 때 느끼는 딱 차오는 감정이었다. 지금 사라에게 물이 한 컵 있어도 - 사라를 지금 목이 말랐다 - 한 모금도 마실 수 없을 것이다.

“조금만 더 가면 언덕 꼭대기에 노천광산이 있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는 계곡 전체를 볼 수 있어.”

“갈 수 있어.”

“우선 좀 쉬자. 네가-”

“갈 수 있다니까.”

갑자기 기분이 좀 나아졌다. 언덕 꼭대기에 서서 내려다보았는데 드넓은 그 초록의 계곡 어딘가에서 파란색 파자마를 입은 작고 통통한 찰리를 발견한다면 자신의 생애에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사라에게는 그 계곡이 모든 것이 빛나고 매끄러운 하나의 모형지도처럼 여겨졌고, 동생 찰리도 단번에 찾아낼 수 있는 곳에 있을 것 같았다. “저기 찰리가 있어요!” 라는 사라의 고함소리가 종처럼 계곡에 울려 퍼지고 모든 사람이 그 소리를 듣고 찰리를 찾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 같았다.

사라는 멈춰 잠시 나무에 기대었다가 다시 걷기 시작했다. 다리가 후들



후들 떨리기 시작했다.

보통 오후 이 시간 쯤에 사라는 주로 텔레비전 앞에 앉아 결혼한 부부들이 서로에 대한 것들을 알아맞히는 게임이나 여자들이 데이트 상대를 보지 않고 선택하는 쇼 프로그램을 보곤 했다. 복도로 가는 통로에 앉아 주로 텔레비전을 보았으며, 사라가 거기에 앉아 있으면 찰리가 들어와 같이 텔레비전을 보곤 했다. 그리고 거실은 어두워지고 숙모가 즐겨 쓰는 소나무향 세제냄새도 나곤 했다.

그리고는 텔레비전에서 하는 ‘쇼(The Early Show)’도 보고 계속 통로에 앉아서 옛날 영화도 보곤 했다. 그리고 사라가 장난을 치면서 “자, 찰리, 이제 옛날 영화 ‘도망자’ 할 거야.” 라고 말하면 찰리는 텔레비전 가까이 있는 의자에 앉아 있다가 영문도 모르고 고개를 끄덕이곤 했다.

사라는 텔레비전에 나오는 배우들과도 얘기를 잘 나누었다. 카우보이가 나와서 “오늘 저녁 여기 조용한데,” 라고 하면 때맞춰 “그래, 너무 조용해.”라고 대꾸하곤 했다. 오후에 했던 옛날 영화 ‘정열의 아라비아(Flame of Araby)’을 보면서 찰리와 거실에 앉아 있지 않고 조와 함께 여기 숲속에 있는 것이 이상하게 여겨졌다.

언덕을 오르는 것이 점점 느려졌다. 흡사 느낌보 자전거 경주에서 우승했던 때 같았다. 이 경기는 발을 땅에 대지 않고 최대한 느리게 가야 하는 경주이다. 경주 내내 빨리 속도를 내서 일등으로 끝내고 싶은 충동을 느꼈지만 천천히 더 천천히 가야 했다. 경주 마지막에 사라와 피터스만 남았고 우승선 바로 앞에서 자전거를 탄 채로 움직이지 않고 균형을 잡으면서 멈춰있었다. 시간이 영원한 것처럼 여겨졌고 바로 그 때 피터스가 균형을 잃고 발을 땅에 댔고 사라가 우승자가 되었다.

사라가 마른 나뭇잎 위로 넘어져 무릎이 땅에 닿자 몸을 바로 하고 잠시 숨을 돌리기 위해 멈췄다.

“괜찮아?”

“응, 그냥 넘어졌어.”

잠시 후 무릎 위로 몸을 숙이고는 머리도 들지 않은 채 “찰리! 찰리,” 하고 외쳤다.

“차아알리이이,” 조가 사라보다 더 큰 소리로 외쳤다.

사라가 외치는 소리를 들었다면 찰리가 대답을 했으리라는 걸 사라는 알고 있었다. 밤에 놀랐을 때 종종 내는 길게 울부짖는 소리로 대답했을

것이다. 잠깐 사라는 그 익숙한 소리를 들었다고 착각했다.

사라는 여전히 한 손을 땅에 댄 채로 대답이 없다는 것이 확실해질 때까지 기다렸다.

“가자,” 죠가 손을 내밀면서 말했다.

죠은 사라를 일으켜 세워주었고 사라는 언덕 꼭대기를 바라보면서 일어섰다. 석탄광맥을 찾기 위해 기계들이 땅을 갈라놓았고 땅이 언덕 밑으로 꺼져 거대한 비탈을 형성했다.

“올라가지 못할 것 같아.” 사라가 말했다. 사라는 나무에 몸을 기댔으며, 그 나무의 나뭇잎들은 기계들이 언덕을 깎아낼 때 불러 내려온 미세한 회색 먼지로 뒤덮혀 있었다.

“올라갈 수 있어. 나는 열 번도 넘게 올라갔었는데.”

흙이 사라의 발밑에서 푹 꺼지자 넘어져 한 쪽 무릎의 살갓이 벗겨졌다. 그리고 또 넘어졌다. 다시 균형을 찾고는 억지웃음을 지으면서 말했다. “지금부터는 널 언덕 밑으로 끌어내리기 밖에는 못할 것 같은데.”

“아니야, 꼭 잡을 테니까 계속 따라와.”

사라는 다시 출발했고 조심스레 한발 한발 내딛었고 돌맹이들 위를 건너뛰었다. 사라가 멈추자 죠가 말했다. “계속 가자. 거의 다 왔어.”

“그거 수범인 것 같애. 치과의사들이 그러지. ‘이제 이 가는 거 거의 다 끝났다.’ 그리고 한 시간이나 더 있다가 또 말하지. ‘이제 진짜 거의 끝났다.’ 그리고 계속 치료하다가 또 말하지. ‘이제 한 군데만 하면 진짜 끝.’”

“그래도 우리는 똑 같은 의사한테 다시 가야 되잖아.”

“더 이상 못가겠어. 다리 옆 살갓이 다 벗겨졌어.”

“네 치과의사 말대로 하면 이제 진짜 거의 다 왔어.”

사라는 흙비탈 꼭대기에서 앞으로 넘어졌고 잠깐 쉬다가 얼굴을 돌려 계곡 밑을 내려다보았다.

## 제 19장

사라는 잠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이전에 상상조차 못했던 계곡이 펼쳐져 있었다. 광활하게 뻗어있는 어두운 숲에 문명의 흔적은 거의 없었다. 까만 나무 꼭대기들이 마당으로 집으로 도로로 몰려 들어올 것만 같았다. 그리고 순식간에 나무들이 파도처럼 집들을 다 휩쓸어 햇빛 속에서 넘실거리는, 끊임없이 계속 이어지는 검녹색의 나뭇잎들만 남겨 놓을 것 같은 인상을 주었다.

계곡 위에서 사라는 쇼핑을 했던 네거리, 약국 그리고 한 번은 율리 숙모가 사용하지 못하게 했던 24개짜리 유리컵 한 세트에 엄마가 당첨됐던 주유소, 식료품 가게, 여름동안 노란 학교버스가 주차되어 있는 공터가 보였다. 계곡 너머로 하얀 소들이 울타리 옆에 모두 모여 있는 다른 언덕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언덕 너머로 또 다른 언덕 그리고 또 다른 언덕.

계곡을 다시 돌아보니 호수가 보였다. 언덕 위에 선 후 처음으로 찰리가 생각났다.

손을 입으로 갖다대고 외쳤다. “찰리! 찰리!” 사라의 귀에 너울거리는 것처럼 느껴지는 희미한 메아리만이 칠 뿐이었다.

“찰리, 제발, 찰리!” 계곡을 흔들여 놓을 정도로 사라의 목소리는 아주 컸다.

사라는 기다렸다. 숲을 내려다보았는데 모든 것이 너무 조용해서 계곡 전체가 그리고 온 세상이 그녀와 함께 기다리는 것처럼 보였다.

“찰리, 찰리!” 쪼가 외쳤다.

“차아알리이이~” 사라는 소리가 오래 지속되게 외쳤다. “내 목소리 들리니이이?”

찰리가 틀림없이 지나갔을 자취를 눈으로 따라가 보았다. - 집, 에이커 씨의 빈 공터, 오래된 목장, 숲. 계곡 전체를 집어 삼킬 만큼 강하게 보이는 저 숲은 어린 남자아이 하나쯤은 충분히 삼켜 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사라는 밀으로 가라앉는 느낌을 받았다.

“찰리! 찰리! 찰리!” 마지막 외침에는 떨림이 있었고, 이것은 사라가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여

태껏 들고 있던 인디언 슬리퍼를 보았다.

“찰리, 제발, 찰리.” 사라는 기다렸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찰리, 어디 있니?”

“찰리!” 죠가 소리쳤다.

둘은 똑같이 조용히 기다렸다. 구름 한 점이 햇빛 앞으로 지나갔고 미풍이 나무들 사이로 불기 시작했다. 그리고 다시 침묵이 흘렀다.

“찰리, 찰리, 찰리, 찰리, 찰리.”

사라는 멈추고 귀를 기울였다. 그리고 갑자기 허리를 숙여 찰리의 신발을 눈앞으로 가져갔다. 올여름 그렇게 자주 흘렸던 뜨거운 눈물, 조금 전 까지만 해도 거의 흘릴 뻔했던 눈물을 기다렸지만 지금은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사라는 생각했다. 올 여름 나는 나 자신의 문제로 수도 없이 울었다. 내 큰 발, 너무 마른 다리 그리고 코 때문에 울었고 우스꽝스러운 내 신발 때문에도 울었다. 그런데 지금 너무나 슬픈데 흘릴 눈물이 남아있지 않았다.

사라는 슬리퍼의 펠트 부분을 눈가리개처럼 눈앞으로 갖고 가 그 자리에 섰다. 그리고 머리 위로 뜨거운 햇빛과 다리 주위에 감도는 바람을 느껴보았고 자신의 발밑으로 쭉 뻗어있는 계곡과 그 높이를 의식해보았다.

“내 말 들어봐, 찰리의 대답이 없다고 해서 낙담할 필요는 없어. 아마 찰리는—”

“잠깐.” 슬리퍼를 밑으로 내리고 계곡을 내려다보았다. 갑자기 바람이 불어 사라의 얼굴에 먼지가 불렀고 사라는 눈을 가리기 위해 손을 들어 올렸다.

“무슨 소리를 들은 것 같아. 찰리! 지금 대답 좀 해봐.”

한 손으로는 눈을 가리고 다른 한 손으로는 슬리퍼를 품에 꼭 안고 기다렸다. 꿈쩍도 하지 않은 채 찰리의 소리를 들으려고 귀 기울였다. 그리고 사라는 굳어버렸다. 또 무슨 소리를 들었다고 생각했다. — 찰리가 길게 소리 높여 흐느끼는 소리. 찰리의 울음소리는 다른 누구보다 더 슬프게 들렸다.

불안감으로 사라는 마치 물을 짜내는 것처럼 슬리퍼를 들고 그것을 계속 비틀었다. 사라는 소리치다가 갑자기 멈추고는 귀를 기울였다. 사라는 죠를 보았고 죠는 머리를 천천히 흔들었다.

사라는 먼 곳을 응시했다. 새 한 마리가 아래쪽에 있던 나무에서 올라와 먼 곳에 있는 언덕을 향해 날아갔다. 들리지 않는 소리에 귀 기울이면 새가 더 이상 안 보일 때까지 기다리다가 사라는 천천히 땅에 주저앉아 머리를 무릎에 숙였다.

사라 옆에서 조가 먼지 속에서 발을 비벼 돌맹이 한 무더기와 흙먼지를 비탈 쪽으로 내려 보냈다. 그 소리가 희미해지자 계속해서 외치기 시작했다. “찰리, 찰리.”



## 제 20장

찰리는 잠이 깨었지만 눈을 감은 채로 잠시 누워있었다.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 기억할 수 없었지만 갑작스런 공포에 사로잡혔다.

찰리에게는 잃어버린 삶의 커다란 부분, 결코 채울 수 없는 빈 자리가 있었다. 낯선 곳에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는 그 곳에 어떻게 왔는지도 모를 때가 종종 있었다. 사라가 ‘데어리 퀸’에서 야구공에 코를 맞았을 때도 그랬다. 사라가 피를 흘리며 무릎을 꿇고 앉아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보고는 너무 당황하여 몸을 돌려 거의 미친 듯이 무작정 달려 차도 사람도 알아차리지 못하고 무턱대고 거리로 돌진해 나갔었다.

우연히 위섹씨가 찰리를 보고 차에 태워 집으로 데려다주어 윌리 숙모가 찰리를 침대에 눕혔다. 하지만 나중에 찰리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다. 그냥 잠에서 깨어 그때까지도 손에 꼭 쥐어져있는 쭈글쭈글해진 아이스크림콘을 보고는 왜 그렇게 되었는지 만을 의아하게 생각할 뿐이었다.

찰리의 모든 생활은 엄격한 일상에서 이루어졌고 이 일상이 유지되는 한 찰리는 편안해했고 잘 지냈다. 똑같은 음식, 같은 침대, 같은 위치에 놓인 같은 가구, 학교 버스에 같은 자리, 같은 수업 순서 등은 찰리에게 매우 중요했다. 하지만 예기치 못한 무서운 뜻밖의 일이 일어나 순식간에 조심스럽게 세워져 있는 찰리의 생활을 온통 흔들어 놓을 가능성은 항상 존재했다.

가장 먼저 찰리가 알아차린 것은 얼굴을 누르고 있는 나뭇가지였다. 그래서 볼 밑으로 손을 넣었다. 아직도 눈을 감은 채로 있었다. 여러 장면들이 마음속에 떠올리기 시작했다. 오래된 보석과 단추들 그리고 장식품들로 가득 차 있던 윌리 숙모의 담배 상자가 보였다. 그리고 그 상자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기억났다. - 호크가 없이 한 줄로 꿰어져 있는 하얀 구슬들, 오래된 귀걸이들, 접어서 끼운 뉴욕의 기념품 사진들이 들어있는 얇은 책, 케이크와 같은 플라스틱 장식품들, 조개껍질로 만든 거북이 등 모든 것이 너무나 생생해서 눈을 떴는데 그 반짝 반짝 빛나던 상자안의 물건들 대신 단조롭고 낯선 숲을 보고 깜짝 놀랐다.

머리를 들자 바로 온 몸이 쭈시는 것을 느꼈다. 천천히 일어나 앉아 손을 내려다보았다. 손톱에 흙이 들어가 까맣게 되어있었고 두개는 부러져

손톱 밑의 속살이 나와 있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 뒤에 있던 통나무 위에 앉아 손가락들을 더 유심히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똑바로 앉아 두 손을 무릎에 떨구었다. 머리는 방금 뭔가를 들은 새처럼 옆으로 휩 젖혔다.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마치 뭔가 잡으려는 것처럼 옆구리 쪽에서 손가락으로 허공을 잡아챘다. 여전히 머리를 옆으로 젖힌 채 한 발자국 앞으로 나아갔다. 찰리는 완전히 정적 속에 남겨졌다.

그리고 목이 쉰, 흥분한 목소리로 계속해서 울부짖기 시작했고 방금 누군가 멀리서 자기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지금은 소리를 지르고 있다.



## 제 21장

언덕 꼭대기에서 사라는 천천히 일어나 숲을 내려다보며 서 있었다. 머리를 이마 뒤로 젖히고 입술을 적셨다. 기다리고 있는 동안 바람이 불어와 입술이 말랐다.

쥬는 뭔가 말하려고 했지만 사라가 한 손을 뺀어 그의 팔을 잡고 그를 저지했다. 감히 자신의 귀를 믿으면서 사라는 비탈 가장자리로 더 가까이 걸어갔다. 이제 사라는 확실히 들을 수 있었다. - 예리하게 반복되는 울음소리 - 그리고 사라는 그것이 찰리의 소리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찰리!” 사라는 온 힘을 다해 외쳤다.

사라는 잠시 멈추고 조용히 귀 기울였다. 찰리의 울음소리는 점점 커졌다. 사라는 찰리가 그다지 멀리 떨어져 있지 않으며 바로 경사 밑, 계곡 방향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찰리아, 저기 찰리가 있어!”

사라는 너무 기빠서 맨 땅 위를 펄쩍펄쩍 날뛰었고 마음만 먹으면 펄쩍펄쩍 뛰어서 언덕 전체를 눌러 부숴 버릴 수 있을 것 같았다.

사라는 자기 앞으로 흙과 자갈을 줄줄 흘려 내려 보내면서 앉은 채 비탈길을 황급히 내려갔다. 경사가 완만한 곳에 다다르자 뛰어갔다. 몇 발 자국 못 가 균형을 잃었고 맨 처음 눈에 띈 나무줄기를 잡고 균형을 잡을 때까지 매달려 있었다.

너무 기빠 다시 한번 함성을 지르고는 몸을 돌려 전속력으로 언덕을 달려 내려갔다. 암갈색의 테니스화는 고무물갈퀴처럼 땅바닥을 탁탁 치고 있었으며 얼굴에는 바람이 불어왔고 손으로는 균형을 잡기 위해 계속해서 나무줄기를 움켜잡았다. 자신이 이 숲 속을 평생 동안 이렇게 뛰어 다녔던 야생동물처럼 느껴졌다. 지금 이 순간 그 누구도 사라를 막을 순 없었다.

사라는 계곡 끝머리에서 멈춰 숨을 헐떡거리면서 서 있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 귀에서도 쿵쿵거렸고 목은 말라 있었다. 나무에 기대 거칠게 울부짖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얼굴을 돌렸다.

사라는 이전에 경험해본 적이 없는 심지어는 코가 깨졌을 때조차도 해본 적이 없는 기절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잠시 들었다. 두 다리가 고무



줄처럼 아무 힘이 없어 나무에 꼭 달라붙어 있는 지금 이 순간까지 사라  
는 사람들이 진짜로 기절한다는 사실조차도 믿지 않았었다.

귀에 요란한 소리가 울려 퍼졌고 너무도 익숙한, 사이렌처럼 울부짖는  
소리도 들렸다.

“찰리?”

귀뚜라미 소리 같은 찰리의 울음소리는 도처에서 들리는 듯하다가도 어  
느 순간에는 전혀 들리지 않는 것 같기도 했다.

사라는 큰 바위들과 나무들을 돌면서 계곡 가장자리를 따라 걸어갔다.  
그리고 어둠이 깔려있는 계곡 안을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거기서 찰리를  
발견하자 가슴에서 뭔가가 울컥하고 올라왔다.

찰리는 찢어진 파자마를 입고 있었고 얼굴은 위로 향하게 하고 손을 쳐  
든 채 온 힘을 다해 외치면서 서 있었다. 눈은 꼭 감고 얼굴은 먼지와 눈  
물로 얼룩져 있었다. 파자마 상의는 굵힌 가슴 부위에서 너털너털 헤어  
져 있었다.

찰리는 눈을 뜨고 사라를 보자 이상한 표정을 지었다. 놀랍고 기쁘고  
믿기지 않는 듯한 복합적인 표정이었다. 사라가 백 살까지 산다고 해도  
그런 표정을 지으며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이 앞으로는 없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사라는 멈춰 서서 찰리를 내려다보았다. 그리고는 앉아서 엉덩이를 바  
닥에 대고 미끄러지면서 비탈길을 내려가 찰리를 품에 안았다.

“오, 찰리.”

찰리의 팔은 강철처럼 사라를 꼭 껴안았다.

“오, 찰리.”

사라는 찰리가 자신의 셔츠를 짊어졌을 때 찰리의 손가락이 자신의 등  
을 찌르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괜찮아, 찰리, 내가 있잖아. 이제 집에  
가자.” 찰리의 얼굴이 사라의 셔츠에 파묻혀 있었고 사라는 찰리의 머리  
를 토닥여 주고는 다시 말했다. “괜찮아 이제, 다 괜찮아.”

사라는 잠깐 동안 찰리를 껴안고 있었고 지금은 뜨거운 눈물이 눈에 고  
여 볼을 따라 흐르고 있었는데도 그 사실조차 몰랐다.

“그래 네 심정 알아.” 사라가 말했다. “그래 알아. 언젠가 내가 홍역에  
걸렸을 때 열이 굉장히 심했었어. 욕실에서 방으로 돌아가는 길을 잃어  
버렸었지. 바로 집 안에서. 너무나 괴로웠어. 침대로 돌아가고 싶은데 찾

을 수가 없었으니까. 그리고 윌리 숙모가 내 목소리를 듣고 나오셨는데 내가 어디에 있었는지 알아? 부엌에 있었어. 부엌에. 부엌에서 황야 한 가운데에 있는 것처럼 길을 잃어버렸지.”

사라는 다시 찰리 머리를 토닥여주면서 말했다. “이것 좀 봐, 내가 네 슬리퍼 한 쪽도 갖고 왔어, 서비스 너무 좋지 않니, 응?”

사라는 슬리퍼를 찰리에게 보여주려 했지만 찰리는 아직도 그녀에게 꼭 매달려 있었다. 그래서 사라도 찰리를 토닥여주면서 꼭 껴안아주었다. 조금 후에 사라가 다시 말했다. “봐봐, 네 슬리퍼야. 어디 신어보자.” 사라 는 무릎을 꿇고 슬리퍼를 신겨주고는 말했다. “자, 이제 훨씬 낫지?”

찰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흐느낌이 아직 남아 있어 가슴이 별떡거리고 있었다.

“집에 걸어갈 수 있겠어?”

찰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사라는 자신의 셔츠 자락을 잡고 찰리의 눈물을 닦아주고 환히 웃었다. “가자, 여기서 얼른 나가 집으로 가자.”

“여기, 이쪽이야.” 죠가 계곡 비탈길에서 소리쳤다. 사라는 찰리를 찾은 기쁨에 죠에 대해서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다. 그리고 잠시 그를 올려다보았다.

“이쪽이야, 그 큰 나무 옆에.” 죠가 소리쳤다. “찰리도 아마 이 길로 그 안으로 들어갔을 거야. 거기만 빼고 계곡 주위는 온통 가시덤불 투성이야.”

사라는 한쪽 팔을 찰리에게 두르고 찰리를 그 나무쪽으로 데리고 갔다. “동네 사람들이 모두 너 찾고 있어. 그거 알아?” 사라가 말했다. “모두가. 경찰이 오고 동네사람들도 다 나와 있어 - 아마 백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널 찾고 있을 걸. 라디오에도 나왔어. 네가 꼭 미국 대통령쯤이나 되는 것 같더라. 사람들마다 다 이렇게 말하고 다녀. ‘찰리가 어디 갔지?’ ‘찰리 찾아야지.’”

갑자기 찰리가 멈춰 서서는 손을 들어올렸다. 사라가 내려다보았다. “왜 그래?”

찰리는 고장난 시계를 가리켰다.

사라는 미소 지었다. “찰리, 너 진짜 대단해. 그거 아니? 자 이제 언덕을 뛰어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너 찾았다고 의기양양하게 말하자. 그리고 나서 시계태엽 먼저 감아줄게.”

사라는 시계를 보았고 태엽이 없어졌다는 것을 알고는 머리를 흔들었다. “고장 났네, 찰리. 봐봐, 시계 바늘이 없잖아. 고장 났어.”

찰리는 다시 시계를 내밀었다.

“고장 났어, 찰리. 보석상에 갖고 가서 고쳐야 돼.”

찰리는 계속 팔을 내밀고 있었다.

“찰리야, 네 시계 고칠 동안 내거 끼고 있을래?” 죠가 물었다. 죠는 비탈길을 미끄러지듯이 내려와 자기 시계를 찰리의 팔목에 끼주었다. “자.”

찰리는 얼굴을 시계 가까이로 숙여 소리를 들었다.

“자, 이제 집에 갈까?” 사라가 자신의 손을 뒷주머니에 집어넣으면서 물었다.

찰리가 고개를 끄덕였다.



## 제 22장

세 명은 숲 속을 한참을 걸었다. 죠가 앞에서 가장 편한 길로 안내하고 찰리와 사라는 뒤에서 따라갔다. 때때로 사라는 몸을 돌려 찰리를 안았고 찰리는 나무와 잿빛 흙과 눈물 냄새를 맡을 수 있었다. 사라가 말했다. “마을 사람들이 다 너를 찾아서 너무 기뻐할 거야. 꼭 새해 전날 밤 같을 거야.”

사라는 왜 이렇게 갑자기 기분이 좋아졌는지 몰랐다. 그것은 정말 알 수 없는 일이었다. 하루 전만 해도 사라는 너무 불행했었다. 새로운 호수로 이동하는 백조들처럼 모든 것을 훌훌 털어버리고 도망치고 싶었는데 지금은 더 이상 그렇지 않다.

언덕 밑에서 찰리를 찾아다녔던 사람들 중 한명인 로드 아저씨가 그들 앞으로 오고 있었고 죠가 외쳤다. “로드 아저씨, 사라가 찰리를 찾았어요!”

“찰리는 괜찮니?” 로드 아저씨가 대답했다.

“괜찮아요, 괜찮아.”

“사라가 찰리를 발견했고 찰린 무사해요. 아무 이상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소리는 차정비소에서 도색 일을 해주는 더스터 로드 아저씨로부터 에이커 아저씨에게 그리고 사라가 모르는 누군가에게로 계속 언덕 밑으로 전해져 내려갔다.

그리고 찰리를 찾아 돌아다녔던 모든 사람들이 세 명이 있는 곳으로 모여 손을 내밀어 찰리 어깨를 토닥여 주기도 하고 사라에게 “속도가 너무 기뻐하시겠구나.” 혹은 “어디서 찾았니?” 혹은 “자, 이제 오늘 밤은 두 다리 쪽 뺀고 자겠구나.”라고 말하기도 했다.

세 명은 이 소란스러운 사람들 틈에 끼여 숲 속을 빠져나와 오후의 어스름한 햇빛이 비추는 오래된 목장에 다다랐다. 찰리와 사라는 그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한가운데에 있었다.

갑자기 사라는 머리 위에서 어떤 움직임을 느꼈다. 위를 올려다보았고 찰리의 팔을 잡았다.

백조들이 바로 머리 위에 있었고 긴 날개로 하늘을 가르면서 목을 쪽 빼고 날아가고 있었다. 이상하면서도 일종의 맹목적인 이동이었다. 너무

낮게 날아 나무와 부딪힐 것 같았지만 마지막 순간에 백조들은 힘껏 위로 올라가 나무 꼭대기 바로 위를 스치듯 날아갔다.

“저기 좀 봐. 찰리, 저기. 백조들이야. 기억해? 새들도 집에 가고 있는 거야.”

찰리는 하늘을 무표정으로 쳐다보았고 호수에서 보았던 우아한 백조들과 저 육중한 몸으로 이상하게 날고 있는 새들을 함께 연상할 수가 없었다. 찰리는 눈을 가늘게 뜨고 하늘을 보고나서 사라를 쳐다보면서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찰리, 저기 백조들이야. 기억해? 호수에서 봤잖아!” 사라가 찰리를 똑바로 보면서 말했다. “지금 집으로 가고 있는 거야. 기억 안나? 저게—”

“저기 윌리 숙모님 오신다, 찰리야. 저기 윌리 숙모님이 오고 계셔.”

찰리의 관심을 하늘로 유도하면서 사라는 아직도 찰리 팔을 잡아당기고 있었다. 지금 찰리가 백조들을 꼭 다시 한번 더 봐야할 것 같았다. “찰리, 저기—”

하늘을 보는 대신 찰리는 들판을 보고 있었고 사라의 손을 뿌리치고 뛰기 시작했다. 사라는 두어 발자국 찰리를 따라가다가 멈추었다. 밝은 연두색 옷을 입고 있는 윌리 숙모가 햇불처럼 빛나는 것처럼 보였고 찰리는 숙모를 향해 황급히 걸어갔다. 파란색의 찢어진 과자마를 입고 길게 자란 풀들 사이를 발을 질질 끌며 걸어가는 모습이 어딘가 모르게 좀 우스꽝스러웠다.

기쁨의 고함 소리가 너무도 날카로워 사라는 그것이 백조들이 내는 소리라고 생각했지만 곧 그것이 찰리가 낸 소리란 걸 알았다. 백조들은 조용했기 때문이다.

“윌리, 찰리 여기 있어요.” 두 사람의 재회에 같이 끼기 위해 에이커 아줌마가 찰리 뒤에서 뛰어오면서 소리쳤다.

윌리 숙모는 느린 다리를 이끌고 최대한 빨리 달려오고 있었다. “다신 찰리를 못 볼 줄 알았어요.” 숙모는 큰 소리로 혼잣말처럼 했다. “저기 위에 광산에 있을 줄 알았는데. 다신 찰리를 못 볼 줄 알았어요. 찰리, 숙모에게 오너라.”

찰리는 바닥의 경사를 따라 튀어 오르면서 언덕을 굴러 내려가는 공처럼 달려갔다.

“오늘이 내 생애에서 최악의 날이었어요.” 숙모는 숨을 헐떡거리고 있

었다. “세상에 태어난 이후로 오늘이 최악의 날이었어.” 찰리, 내 아가, 어디보자. 세상에, 볼만 하구나.”

찰리는 숙모 품에 안겼다. 찰리 머리위로 숙모가 눈물을 흘리면서 에이커 아줌마에게 말했다. “바비를 절대 잃어버리지 않길 바랍니다. 이 말을 꼭 하고 싶어요. 어느 누구도 숲 속이나 광산 같은데서 누군가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사라는 오래된 회색 오두막집 옆에 있는 목장에 서서 백조들이 언덕 너머로 사라지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찰리와 숙모가 사람들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보자 편안해지면서 몸이 축 늘어지는 것 같았다. 지금 언덕을 걸어 내려가면 퍼펫인형처럼 가벼운 발걸음으로 땅바닥에 발을 대지도 않고 사뿐사뿐 걸을 수 있을 것 같았다. 사라는 잠깐 앉아있었고 마을 사람들 모두가 내려갔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주위를 둘러보니 죠가 아직도 자기 뒤에 서있었다. “다른 사람들이랑 함께 내려간 줄 알았어.”

“아니.”

“오늘 하루 내게는 참 이상한 날이었어.” 사라는 백조들이 사라진 지평선을 보면서 말했다.

“나한테도 오늘은 이상한 날이었는데.”

“그만 집에 가자.”

죤은 사라와 함께 두어 발자국 걸어가다가 목을 가다듬고는 말했다. “베니 호프만이 초대할 파티에 나랑 같이 갈래?”

사라는 잠깐 자기가 잘못 들었다고 생각했고, 만약 제대로 들은 거라면 로지 캄튼에게 “어이, 아름다운 아가씨.”라고 소리쳤던 남자애처럼 뭔가 착오가 있다고 생각했다.

“뭐라고?”

“나랑 같이 파티에 갈 수 있는지 물었어.”

“난 초대 안받았는데.” 사라는 백조들에 대해 생각했다. 지금쯤 백조들은 대학에 있는 호수를 발견했을 것이고 커다란 날개짓을 하면서 그리고 깃털을 곤두세우면서 호수에 내려앉으려고 하고 있을 것이다. 사라는 그들을 호수에 내려앉게 해 줄 길고도 완벽한 활주를 직접 보는 듯했다.

“내가 초대하는 거야. 내가 원하면 누구든 데려가도 된다고 베니가 말했어. 실은, 제발 누구든 데리고 오라고 사정하더라. 베니와 세미, 존, 피트가 밴드를 결성했는데 아무나 와서 노래 들어도 되네.”

“글쎄, 잘 모르겠어.”

“왜? 끔찍한 기타 연주를 들어줘야 하는 것 말고는 달리 문제될 게 없잖아. 베니는 한두 번 밖에 레슨도 안받았어.”

“글쎄....”

“뭐 문제될 거 없어. 그냥 베니네 집 뒤뜰에 앉아 이백달러짜리 기타와 앰프와 함께 베니가 망가지는 것을 봐주기만 하면 돼.”

“갈수 있을 것 같애.”

“30분 후에 너의 집으로 데리러 갈게. 좀 늦어도 괜찮을 거야. 마지막 50곡이 처음 50곡과 똑같이 들릴 테니까.”

“늦지 않게 준비할 수 있을 거야.”



## 제 23장

사라가 보도로 걸어 올라왔을 때 완다는 현관 앞 베란다에 서 있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니, 무슨 일이야? 찰리는?”

“찰리 찾았어. 지금 숙모와 함께 있어.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찰리 실종 소식을 어디서 들었는지 아니? 집에 돌아오는 길에 차안 라디오에서 들었어. 내 동생이 실종되었다는 소식을 어떤 디스트 자키가 전하는 것을 들었을 때 내 기분이 어땠을 것 같니? 거리로 내려가려고 몰려드는 수많은 인파들로 가득 찬 백여 대의 차량들 때문에 여기로 오는 것도 힘들었어.

“어쨌든, 찰리는 무사해.”

“그래서 에이커 아저씨가 찰리를 만나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봐야겠다고 말했구나.”

“이건 내 추측인데, 밤중에 일어나 백조를 보러 갔다가 계곡에 갇혔고, 거기에서 목 놓아 울고 있었어.”

완다는 베란다에서 내려와 거리를 내다보면서 담장 옆 무성한 잎 주위를 보기 위해 몸을 젖혔다. 완다가 말했다. “저기 카슨스씨 집 베란다에 보이는 게 그 사람들 맞지?”

사라가 쳐다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찰리는 아직도 파자마를 입고 있고 윌리 숙모는 땀이 흐르지 않도록 이마에 손수건을 묶고 연두색 옷을 입고 계셔. 그리고 그 두 사람 수박 먹고 있어. 솔직히, 두 사람 정말 대단해.”

“어쨌든 찰리가 무사해서 다행이다.”

완다는 보도를 내려가다가 멈춰 섰다. “같이 갈래?”

“아니, 난 파티에 가야 해.”

“누구 파티?”

“베니 호프만.”

“초대 못 받은 걸로 아는데.”

“쥔 멜비가 날 데리고 갈 거야.”

“쥔 멜비? 네가 그렇게 싫어하던 웬수?”

“웬수가 아니야, 언니. 쥔은 내가 알고 있는 아주 자상한 사람들 중 한



명이야.”

“3개월 동안 죠 멜비에 대한 험담을 들어왔는데. 죠 멜비, 도둑놈; 죠 멜비, 배신자; 죠 멜비,-”

“사람은 누구나 때론 실수도 할 수 있는 법이야.” 사라가 냉담하게 말했다. 사라는 몸을 돌려 거실로 들어가서 문 옆에서 자고 있는 보이쉬를 보면서 말했다. “보이쉬, 찰리 찾았어.” 사라는 허리를 숙여 보이쉬 귀 뒤를 문질러 주었다. 그리고 부엌으로 가 샌드위치를 만들어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전화벨이 울렸다.

“여보세요.” 음식을 입에 가득 문 채 사라가 말했다.

“여보세요, 윌라미나 고드프레이 씨에게 장거리 전화가 왔는데요.” 교환원이 말했다.

“아, 고드프레이씨는 길 건너편에 있어요. 잠깐 기다리시면 가서 모시고 올게요.”

“교환원, 아무하고나 통화해도 돼요.” 사라는 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었다.

사라는 황급히 말했다. “아뇨 모시고 올게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오래 걸리지 않아요. 바로 저기 길 건너에 계세요.”

“사라? 사라니?”

“예, 저예요.” 또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잠깐 기다리세요. 윌리 속도 모시고 올게요.”

“사라야, 찰리 찾았니?”

“네, 찾았어요. 근데 속도 모시고 올게요. 바로 카슨스씨 베란다에 계시거든요.”

“찰리는 무사하니?”

“네. 지금 수박 먹고 있어요.”

“어디서 찾았니?”

“숲 속으로 올라갔다가 길을 잃었는데요. 찰리는 계곡에서 찾았어요. 저 처분하고 지치고 배고파 있었지만 지금은 괜찮아요.”

“잘됐구나. 못 찾았으면 오늘 밤 집에 가려고 하고 있었다.”

“그래요?”

“근데 모든 것이 해결됐으니 주말에나 가야겠구나.”

“그러세요.”

“별 일 없으면 그럼 토요일 날 보자.”

“그러죠.”

“전화 왔었다고 숙모한테 꼭 전하렴.”

“네.”

사진 앨범 속에서 부러진 이를 하고 웃고 있던 곱슬머리의 한 남자 사진 한 장이 사라의 마음속에 떠올랐다. 그리고 갑자기 삶이라는 것이 거대하고 평탄치 않은 일련의 계단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자신은 ‘교도소 재산’이라고 쓰여 있는 셔츠를 입고 꼼짝도 하지 않은 채 그 계단들 위에서 있었다. 그리고 방금 어둠 속에서 거대한 계단 하나를 올라갔고 거기 서서 기다리고 있었다. 자신 앞에는 또 다른 계단들이 놓여있었다. 그래서 하늘만큼 높이 올라갈 수 있었고 찰리가 작고 어려운 계단을 오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계단 맨 밑에서 아버지는 더 올라가려고도 하지 않은 채 앉아있었다. 사라는 그 눈부신 하얀 계단위에서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이들을 보았고 잠깐 동안 모든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명확했다.

“사라?”

“듣고 있어요.”

“찰리가 무사하기만을 바랬다.”

“네, 찰린 괜찮아요.”

“그래, 별 일 없으면 토요일 날 보자꾸나.”

“그래요.”

“잘 있거라.”

사라는 수화기를 든 채로 잠깐 앉아 있었다. 그리고 수화기를 내려놓고는 먹다 남은 샌드위치를 다 먹었다. 천천히 테니스화를 벗고 파란색으로 물들어 있는 발을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재빨리 일어서서 파티에 갈 준비를 하였다.

## 작가소개

Betsy Byars는 북캐롤라이나 샬롯(Charlotte)에서 태어나 퀸스대학(Queens College)를 졸업했다. 네 명의 자녀의 어머니로써 바이어스는 가족이 점점 늘어나고 있을 때 아동들을 위한 글을 쓰기 시작했다. 바이어스는 1971년 'Newberry Medal'을 수상한 '백조의 여름(The Summer of the Swans)'을 비롯해 대략 50권 이상의 아동 문학을 집필했다.



## 참고문헌

### 1. 국내서

- 김재현. 「번역의 원리와 실제」. 서울:한신문화사, 1995.  
안정효. 「영어 길들이기(번역편)」. 서울:현암사, 1997.  
최정화. 「최정화 교수의 통역 번역 노하우」. 서울:넥서스, 2001.

### 2. 번역서

- Bassnett, Susan 저/엄재호 역:「번역학 개론」. 서울:인간사랑, 1999.  
Lederer, Marianne 저/전성기 역:「번역의 오늘:해석이론」.  
서울:승실대학교 출판부, 1997.  
마스모토 야스히로/미쓰모토 아이린 저/김정우 역:「영어번역을 하려면  
꼭 알아야 할 90가지 핵심 포인트」. 서울:창문사, 1997